

2023년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제안 기초 연구

책임연구원

황순옥(대덕구육아복합마더센터 센터장)

공동연구원

이지선(대덕구육아복합마더센터 팀장)

김혜린(대덕구육아복합마더센터 팀원)

오다영(대덕구육아복합마더센터 회계원)

본 연구는

2023년 참여형 현장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된 연구로서

본 연구결과는 사회서비스원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차 례

제1장. 연구개요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문제	6
제3절 역량강화의 이론적 배경	6
제2장.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9
제1절 응답자의 기본정보	9
제2절 응답자의 역량	16
제3절 응답자의 사회참여 현황	22
제4절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 프로그램 제언	29
제3장. 포커스그룹 인터뷰	48
제1절 연구참여자	48
제2절 연구절차	49
제3절 연구결과	54
제4장 논의 및 결론	82
참 고 문 헌	89
부록 : 설문지	94

표/그림 차례

<표 1> 역량과 역량강화의 이론적 정의	6
<표 2> 역량강화의 정의	8
<표 3> 응답자의 연령	9
<표 4> 응답자의 거주지	10
<표 5> 응답자의 최종학력	11
<표 6> 응답자의 자녀연령	12
<표 7> 본인 경제 수준	13
<표 8> 현재 본인의 역량 정도	4
<표 9> 본인의 충분한 역량	15
<표 10> 본인의 부족한 역량	16
<표 11> 양육하는 여성(경력단절 여성 포함)의 역량 강화 필요성	17
<표 12> 양육하는 여성(경력단절 여성 포함)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필요 정도	18
<표 13>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 강화 필요 영역	19
<표 14> 사회참여(취업/창업 포함) 현황	20
<표 15> 과거 사회참여(취업/창업 포함) 경험 여부	21
<표 16> 사회참여(취업/창업 포함) 계획 여부	22
<표 17> 사회참여(취업/창업 포함) 계획 시, 재취업의 어려움 여부	23
<표 18> 재취업 시, 어려운 부분	24
<표 19> 양육하는 여성의 사회참여(취업/창업 포함) 확대 지원 필요성	25
<표 20> 양육하는 여성의 사회참여(취업/창업 포함) 확대 지원 필요 영역	26
<표 21>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프로그램 참여 의향	27
<표 22>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프로그램 불참 시, 이유	28
<표 23>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시, 프로그램 선택의 중요 고려사항	29
<표 24>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관련 희망 프로그램	30
<표 25> 희망 프로그램(19번 응답 참조)의 세부 영역 요구도	32

<표 26> 프로그램 선택 이유	38
<표 27> 프로그램 운영 시, 적절한 기간	39
<표 28> 프로그램 운영 시, 적절한 횟수	40
<표 29> 프로그램 운영 시, 적절한 시간 정도	41
<표 30> 프로그램 이수 후, 활용 방안	42
<표 31> 사회참여(취업/창업) 시, 희망 근무 시간	43
<표 32> 파트타임 근무 희망 이유	44
<표 33> 프로그램 건의사항	45
<표 34>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48
<표 35> 프로그램 개발제안을 위한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 목록(안)	49
<표 36> 자료수집 목록	52
<표 37> FGI분석 결과	54
<표 38> 프로그램 개발 제안	86

[그림 1] 응답자의 연령	10
[그림 2] 응답자의 거주지	11
[그림 3] 응답자의 최종학력	12
[그림 4] 응답자의 자녀 연령	13
[그림 5] 본인 경제 수준	14
[그림 6] 현재 본인의 역량 정도	15
[그림 7] 본인의 충분한 역량	16
[그림 8] 본인의 부족한 역량	17
[그림 9] 양육하는 여성(경력단절 여성 포함)의 역량 강화 필요성	18
[그림 10] 양육하는 여성(경력단절 여성 포함)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필요 정도	19
[그림 11]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 강화 필요 영역	20
[그림 12] 사회참여(취업/창업 포함) 현황	21
[그림 13] 과거 사회참여(취업/창업 포함) 경험 여부	22

[그림 14] 사회참여(취업/창업 포함) 계획 여부	23
[그림 15] 사회참여(취업/창업 포함) 계획 시, 재취업의 어려움 여부	24
[그림 16] 재취업 시, 어려운 부분	25
[그림 17] 양육하는 여성의 사회참여(취업/창업 포함) 확대 지원 필요성	26
[그림 18] 양육하는 여성의 사회참여(취업/창업 포함) 확대 지원 필요 영역	27
[그림 19]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프로그램 참여 의향	28
[그림 20]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프로그램 불참 시, 이유	29
[그림 21]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시, 프로그램 선택의 중요 고려사항	30
[그림 22]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관련 희망 프로그램	31
[그림 23] 희망 프로그램(19번 응답 참조)의 세부 영역 요구도	36
[그림 24] 프로그램 선택 이유	38
[그림 25] 프로그램 운영 시, 적절한 기간	39
[그림 26] 프로그램 운영 시, 적절한 횟수	40
[그림 27] 프로그램 운영 시, 적절한 시간 정도	41
[그림 28] 프로그램 이수 후, 활용 방안	42
[그림 29] 사회참여(취업/창업) 시, 희망 근무 시간	43
[그림 30] 파트타임 근무 희망 이유	44
[그림 31] 프로그램 건의사항	46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80년 독일에서 풀뿌리여성운동의 결실로 ‘자조’와 ‘역량강화’라는 운영 철학을 가지고 여성, 아이들, 세대를 아우르는 돌봄 공동체를 지향하며 설치된 마더센터는 현재 전 세계 1,000여 개 정도 운영되고 있다. 풀뿌리여성운동은 그동안 주변화되어 온 지역사회를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여성이 주체가 되어 지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운동이다(김영남, 2012). 국내에서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서울시를 중심으로 지역에 기반한 풀뿌리여성회가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 진행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높여왔다.

이 과정에서 2013년 지역에 기반한 풀뿌리여성운동단체 ‘춘천여성회’가 <춘천여성협동조합 마더센터>를 설립하였고(김영선, 2017), 이를 벤치마킹하여 설치, 운영하게 된 곳이 바로 본 대덕구육아복합마더센터이다. 대덕구육아복합마더센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 39조(여성친화도시),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등 일상적 삶에서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정책을 운영하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들의 커뮤니티 형성은 육아의 사회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육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커뮤니티는 서로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지역의 공동체성 회복으로 이어진다(김효정, 박경옥, 2021). 낮아지는 저출산 상황이 계속되는 현대사회에서 가족과 부모를 둘러싼 주변의 사회적 지지 및 부모들이 서로의 육아에 대한 고민을 공유

하고 공감하는 교류의 장은 필수적이다(임현주, 최향준, 최선녀, 2012).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교육과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남녀 간 지위의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매해를 거듭할수록 여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성 주류화가 실천되고 있으나 여성들이 체감하는 사회체계의 변화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가운데,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 공정함 등을 개선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의 삶의 경험과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이영안, 2020).

그러나 여성은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 과정에서 기쁨과 즐거움도 느끼지만 자녀를 양육하면서 찾아오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양육 스트레스와 복합적인 부담을 겪게 된다(윤소영, 2005).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자녀 양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가중되고 그중에서도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자녀 양육의 부담이 어머니에게 편중되고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영미, 송하나, 2015). 최근에는 가족 구조의 변화,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로 많은 영유아들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양육되기보다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도 있다(이미화, 민정원, 엄지원, 윤지연, 2013).

취업모는 일과 가사, 육아 모두를 감당해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양육 부담에 대한 역할 분담 차원에서 어린이집에 주로 영아기 자녀를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나현, 이은주, 곽수영, 박미라, 2013). 동시에 육아와 일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가사노동을 동시에 수행하며 육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한편 양육하는 미취업모는 많은 것을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영아기 자녀의 양육을 대부분 혼자 감당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고립감과 자아정체성 문제, 자아실현 부재 등의 심리적 갈등과 내적 부담을 동반하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이은주, 2010),

자녀의 조기교육과 사회성 발달 등을 이유로 영아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이연화, 2016).

아무튼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미취업모 모두의 양육 부담은 양육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그것은 자녀에 대한 양육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까지 한다(박세롬, 노보람, 박세준, 이순형, 2015). 따라서 양육하는 여성이 양육 부담감을 해소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도구적, 정서적, 정보적, 교육적 양육지원이 요구되는데(이은주, 2010), 이것은 양육 지원을 많이 받는 어머니일수록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보이며 양육효능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문영경, 민현숙, 2012).

양육지원은 취업모와 미취업모 모두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고 과중한 역할 부담을 줄여주며 양육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관된 양육 행동 실천과 올바른 양육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정미라, 김경숙, 이방실, 2013). 이를 위해 양육하는 여성들의 일차적인 양육과 역할 수행 관련해서, 양육하는 여성들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적, 국가적으로 양육지원과 역량 강화의 다양한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이은주, 2010).

여성의 고학력화 추세로 자아실현 욕구와 사회적 관계망의 참여 욕구가 증가하고 국가가 당면한 저출산·초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여성 인적 자원 활용이 주목받으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손제희, 김은정, 2014). 저출산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의 부족은 국가 전체 경제성장의 둔화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국제경쟁력을 하락시킬 수 있다. 이에 국가는 여성 인적 자원 활용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이 여성 개인의 상황 및 욕구로 이어져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근로를 지속하

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노동을 하는 여성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동시에 직장생활도 균형감있게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많은 취업 여성들은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한다는 스트레스로 인해 자녀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윤정, 김계현, 2010). 이런 스트레스와 죄책감은 부모 역할 갈등으로 이어져 직장업무에 몰입하기 어렵거나, 늘 시간이 부족하고 정신적 여유가 없는 불안정한 삶을 경험하게 만든다(양소남, 신창식, 2011). 그러므로 양육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일-가족양립(자녀 양육)을 위한 다양한 양육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노동시장이 임금, 일자리 안정성 등 근로조건에서 질적 차이가 나면서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양상에서 여성의 불안정한 노동이 강화됨에 따라 여성은 출산, 양육 시기에 사회참여를 유지하기보다 이탈을 선택하여 ‘경력단절’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며(윤자영, 2018),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경우 불안정한 일자리로서의 노동시장 특성을 한층 더 강화시킨다. 이로 인해 경력단절 후의 재취업은 경력단절 이전의 일자리 질과 전혀 다를 것을 경험하게 된다(김정원, 2020). 여성이 출산과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할 경우, 경력단절 후 일자리는 시간제이거나 비정규직이거나, 저임금 등의 특성을 가질 확률이 높다(최인선, 이소영, 2022). 그러므로 양육하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효성있는 사회적 지원들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회적 지원은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에 의해 제공되는 비물질적 형태의 도움인 비공식적 지원과 사회복지제도 또는 지역사회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물질적 도움 등이 포함된 공식적 지원으로 구분되며, 이것은 다시 세부 지원의 형태에 따라 정서적, 정보적, 도구적, 평가적 지

원 등으로 구분된다. 정서적 지원은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험의 행위를 포함하며, 정보적 지원은 개인의 문제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도구적 지원은 일을 대신해 주거나,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는 등의 직접적인 도움을 의미한다. 또한 평가적 지원이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주거나 부정하는 등의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조교수, 문영경, 2012).

이러한 사회적 지원은 양육하는 여성의 심리적 건강과 양육 행동, 나아가 자녀들의 건강 및 복지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다(조교수, 문영경, 2012). 그러므로 대덕구육아복합마더센터가 양육하는 여성들에게 취업이나 창업 등에 도움을 주면서, 궁극적으로는 개인이 특정한 상황에 적응하고 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행동의 집합체인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천적 양육지원을 제공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양육하는 여성 개인의 삶과 그 가정의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사회적 지원 방안이라 사료되는 바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에 거주하는 양육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양적 설문 조사와 질적 면담을 통해 자녀를 성장시키는 올바른 부모 역할에 충실을 기하는 동시에, 자신의 정서 함양과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녀양육, 자기개발, 취업·창업을 위한 능력개발 및 인문·교양 교육 등에 대한 그들의 필요와 욕구에 기초한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함으로써 실제적 지원 방향을 도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제안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이를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양육하는 여성의 사회참여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의 욕구는 어떠한가?
2. 양육하는 여성의 욕구에 기반한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제안의 내용은 무엇인가?

제3절 역량강화의 이론적 배경

역량과 역량강화의 이론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 1> 역량과 역량강화의 이론적 정의

구분	학자	정의
역량	White(1959)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
	McClelland(1973)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접근방법
	Boyatzis(1982)	개인이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며 환경변화에 무관하게 효과적이고 탁월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개인의 내재적 특성
	Spencer&Spencer(1993)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준거를 따르는 효과적이고 우수한 성과에 있어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재적인 특성

	Dubois(1993)	기업의 조직 환경 속에서 맡은 역할을 성공적이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개인의 행동적인 특성
	이재경(2002)	기업주식이 추구하는 가치나 기업철학,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낼 수 있는 직원의 행동 특성
	이흥민, 김종인(2003)	조직 내의 개인이 어떤 상황이나 직무에서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지식, 기술, 태도 및 행동
	박수홍, 정계숙, 유미숙, 차지량, 홍광표(2013)	업무성과와 관련된 광범위한 심리적 혹은 행동적 특성으로서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 그것과 관계되어 우수한 성과를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주는 기준이 되며, 이는 그 일과 관련하여 지식, 기술, 능력 및 기타특성을 종합적으로 표현해 내는 기제가 됨
	김미란, 엄우용(2022)	조직과 개인의 성공적인 성과 달성의 핵심이 되며 관찰과 측정 및 지도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를 의미 조직 내의 개인이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태도 및 행동의 집합체. 개발과 측정이 가능한 개인의 행동 특성 또는 능력
역량 강화	Bandura(1977) &신국희(2002)	요구되는 행동을 잘할 수 있다는 믿음, 판단을 형성해주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촉진시키는 경험과 기회를 주는 과정
	Rappaport&Zim merman(1988)	개인의 통제감이나 영향력 등의 심리적 상태 그리고 실제 사회적 영향, 정치적 힘, 법적 권리 등에 대한 고려
	Staples(1990) &김미옥(2005)	누군가가 힘을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힘을 얻고 힘을 발전시키고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것
	Parsons(1991) &박종미(2010)	힘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힘을 얻고, 힘을 개발하며 활성화시키고, 축적해 나가며, 무엇인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증강시키는 것
	박성의, 도미향(2019)	개인이 수행하는 핵심 업무에 영향을 주고 업무성과와 관련성이 높고 조직원의 성과에 따라 측정 가능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선되어질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의 집합체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의 역량강화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역량강화의 정의

구분	프로그램 영역	하위영역
개인역량	성인문해 역량	한글문해
	학력보완 역량	학력인증
사회역량	직업능력 향상 역량	기초, 직업, 취업준비, 자격증취득
공통역량	문화예술 역량	건강·스포츠, 문화예술 향유, 문화예술 숙련
	인문교양 역량	사회적 소양, 인문학적 교양, 생애주기별 강좌
	시민참여 역량	시민의식, 시민역량, 시민활동, 소외계층 지원

본 연구에서는 역량강화의 개념을 앞서 기술한 대표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역량, 사회역량, 공통역량으로 구분하고 양육하는 여성들의 필요한 역량을 알고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방향을 나타내고자 한다.

제2장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본 연구에서는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프로그램 개발 제안을 위해 2023년 8월 17일 ~ 9월 8일까지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300명의 양육하는 여성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287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1절 응답자의 기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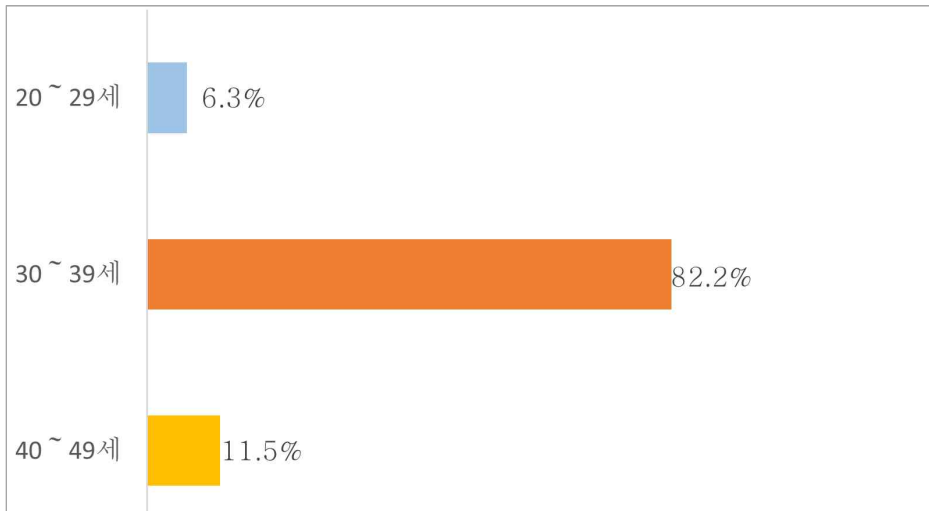
1. 연령

조사응답자의 나이는 ‘30세 이상~39세 이하’가 236명(82.2%)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40세 이상~49세 이하’ 33명(11.5%), ‘20세 이상~29세 이하’ 18명(6.3%),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응답자의 연령

구분	인원(명)	퍼센트(%)
20~29세	18	6.3
30~39세	236	82.2
40~49세	33	11.5
전체	287	100.0

<그림 1> 응답자의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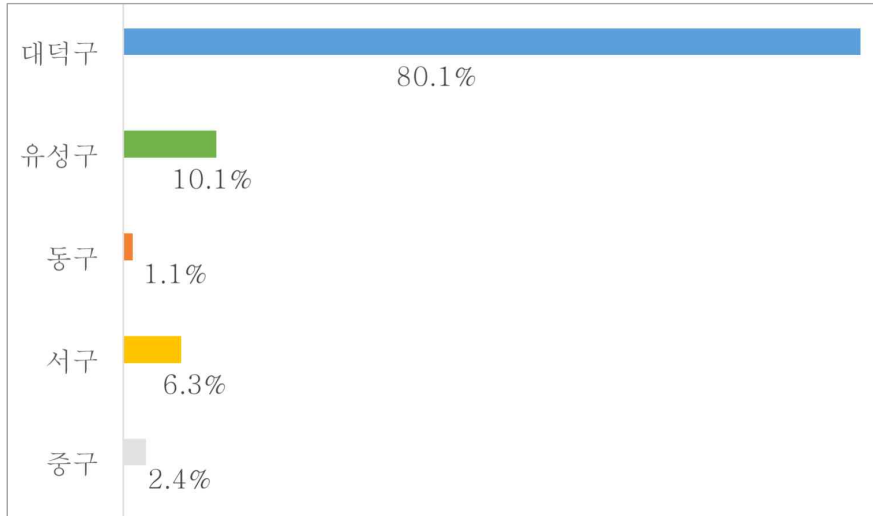
2. 거주지

조사응답자의 거주지는 ‘대덕구’가 230명(80.1%)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유성구’ 29명(10.1%), ‘서구’ 18명(6.3%), ‘중구’ 7명(2.4%), ‘동구’ 3명(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응답자의 거주지

구분	인원(명)	퍼센트(%)
대덕구	230	80.1
유성구	29	10.1
동구	3	1.1
서구	18	6.3
중구	7	2.4
전체	287	100.0

<그림 2> 응답자의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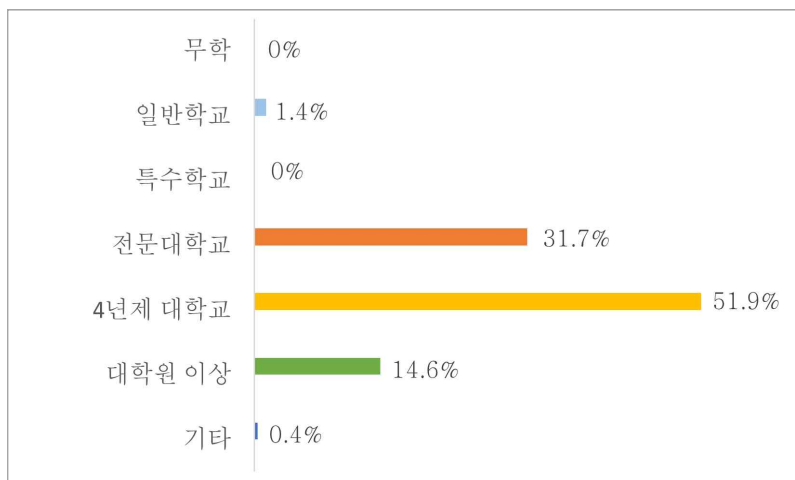
3. 최종학력

조사응답자의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교’가 149명(51.9%)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전문대학교’ 91명(31.7%), ‘대학원 이상’ 42명(14.6%), ‘일반학교’ 4명(1.4%), ‘기타(교육부 비인가 대안학교, 홈스쿨링)’ 1명(0.4%), ‘무학’과 ‘특수학교’ 0명(0%)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응답자의 최종학력

구분	인원(명)	퍼센트(%)
무학	0	0
일반학교	4	1.4
특수학교	0	0
전문대학교	91	31.7
4년제 대학교	149	51.9
대학원 이상	42	14.6
기타(교육부 비인가 대안학교, 홈스쿨링)	1	0.4
전체	287	100.0

<그림 3> 응답자의 최종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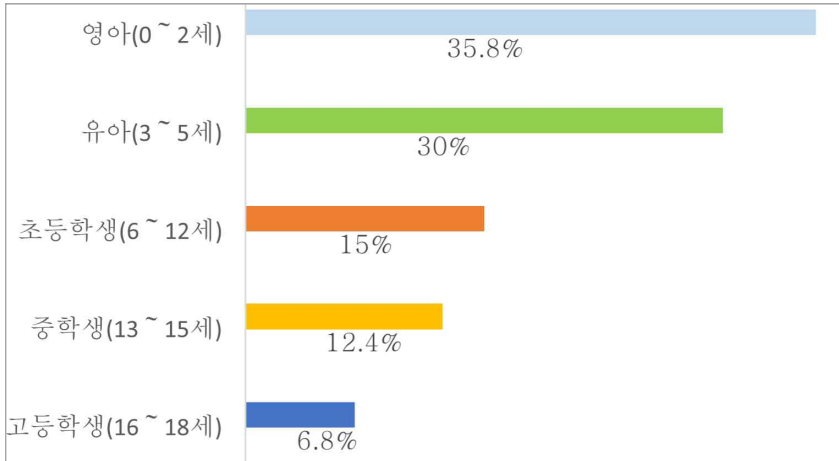
4. 자녀 연령

조사응답자의 자녀 연령은 ‘영아’가 110명(35.8%)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유아’ 92명(30%), ‘초등학생’ 46명(15%), ‘중학생’ 38명(12.4%), ‘고등학생’ 21명(6.8%)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응답자의 자녀 연령 (중복응답 가능)

구분	인원(명)	퍼센트(%)
영아(0~2세)	110	35.8
유아(3~5세)	92	30
초등학생(6~12세)	46	15
중학생(13~15세)	38	12.4
고등학생(16~18세)	21	6.8
전체	307	100.0

<그림 4> 응답자의 자녀 연령 (중복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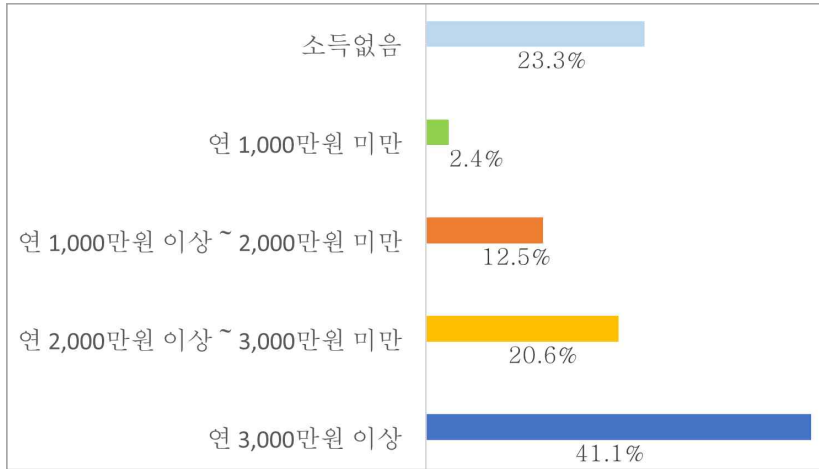
5. 본인 경제 수준

조사응답자의 경제 수준은 ‘연 3,000만원 이상’이 118명(41.1%)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소득없음’ 67명(23.3%), ‘연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59명(20.6%), ‘연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36명(12.5%), ‘연 1,000만원 미만’ 7명(2.4%)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본인 경제 수준

구분	인원(명)	퍼센트(%)
소득없음	67	23.3
연 1,000만원 미만	7	2.4
연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36	12.5
연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59	20.6
연 3,000만원 이상	118	41.1
전체	287	100.0

<그림 5> 본인 경제 수준



제2절 응답자의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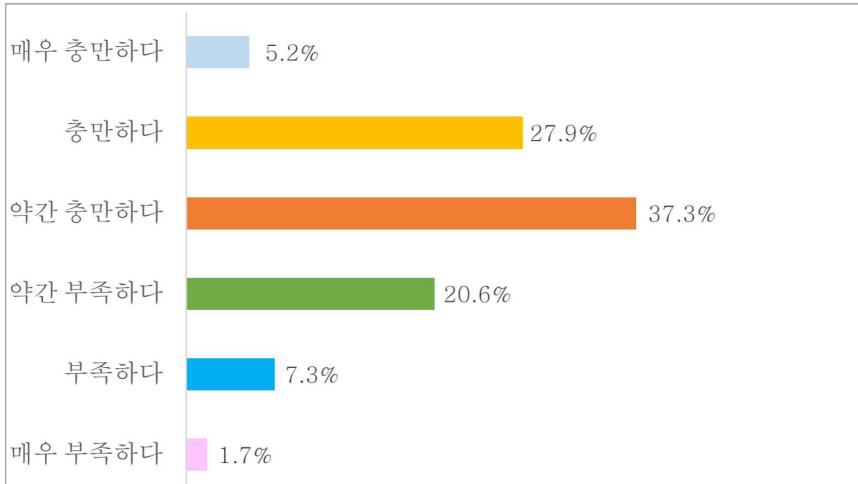
1. 현재 본인의 역량 정도

자신의 역량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약간 충만하다’가 107명(37.3%)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충만하다’ 80명(27.9%), ‘약간 부족하다’ 59명(20.6%), ‘부족하다’ 21명(7.3%), ‘매우 충만하다’ 15명(5.2%), ‘매우 부족하다’ 5명(1.7%)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현재 본인의 역량 정도

구분	인원(명)	퍼센트(%)
매우 충만하다	15	5.2
충만하다	80	27.9
약간 충만하다	107	37.3
약간 부족하다	59	20.6
부족하다	21	7.3
매우 부족하다	5	1.7
전체	287	100.0

<그림 6> 현재 본인의 역량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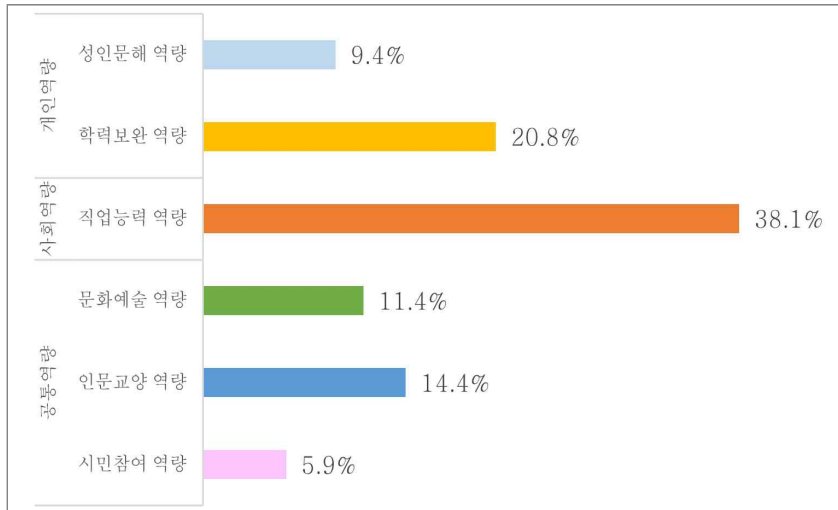
2. 본인의 충만한 역량 영역

자신의 역량을 ‘매우 충만하다’, ‘약간 충만하다’, ‘충만하다’ 라고 응답한 196명(68.3%)은 ‘자신의 역량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대해 77명(38.1%), ‘사회역량-직업능력역량’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두 번째 ‘개인역량-학력보완 역량’ 42명(20.8%), 세 번째 ‘공통역량-인문교양 역량’이 29명(14.4%), 그 다음은 ‘공통역량-문화예술역량’ 23명(11.4%), ‘개인역량-성인문해 역량’ 19명(9.4%), ‘공통역량-시민참여 역량’ 12명(5.9%)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9> 본인의 충만한 역량 (중복응답 가능)

구분		인원(명)	퍼센트(%)
개인역량	성인문해 역량	19	9.4
	학력보완 역량	42	20.8
사회역량	직업능력 역량	77	38.1
공통역량	문화예술 역량	23	11.4
	인문교양 역량	29	14.4
	시민참여 역량	12	5.9
전체		202	100.0

<그림 7> 본인의 충분한 역량 (중복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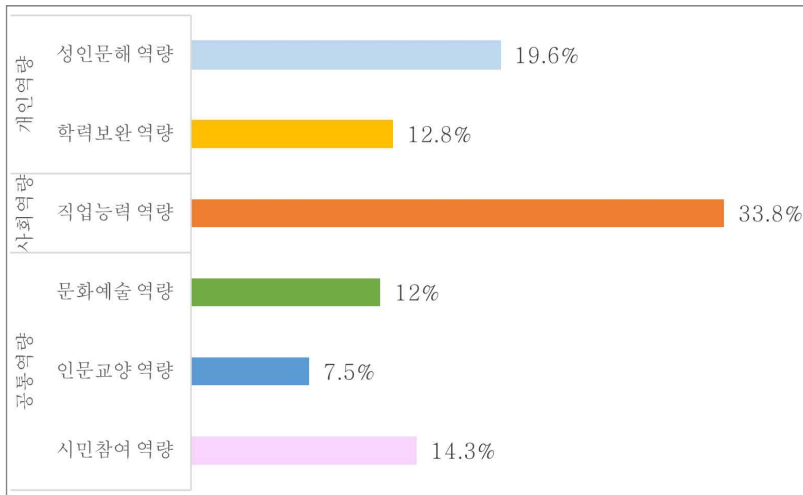
3. 본인의 부족한 역량 영역

자신의 역량을 ‘매우 부족하다’, ‘약간 부족하다’, ‘부족하다’ 라고 응답한 91명(32.2%)은 ‘자신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대해 45명(33.8%), ‘사회역량-직업능력역량’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두 번째 ‘개인역량-성인문해 역량’ 26명(19.6%), 세 번째 ‘공통역량-시민참여 역량’ 19명(14.3%), 그 다음은 개인역량-학력보완 역량 17명(12.8%), ‘공통역량-문화예술 역량’ 16명(12%), ‘공통역량-인문교양 역량’ 10명(7.5%)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10> 본인의 부족한 역량 (중복응답 가능)

구분		인원(명)	퍼센트(%)
개인역량	성인문해 역량	26	19.6
	학력보완 역량	17	12.8
사회역량	직업능력 역량	45	33.8
공통역량	문화예술 역량	16	12
	인문교양 역량	10	7.5
	시민참여 역량	19	14.3
전체		133	100.0

<그림 8> 본인의 부족한 역량 (중복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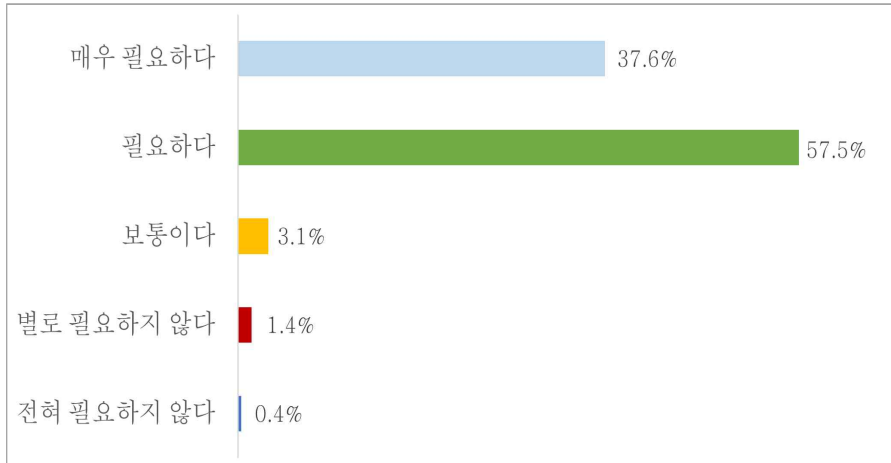
4. 역량 강화의 필요성

‘양육하는 여성(경력단절 여성 포함)의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매우 필요하다’가 108명(37.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필요하다’ 168명(57.5%), ‘보통이다’ 9명(3.1%), ‘별로 필요하지 않다’ 4명(1.4%), ‘전혀 필요하지 않다’ 1명(0.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해 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1> 양육하는 여성(경력단절 여성 포함)의 역량 강화 필요성

구분	인원(명)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08	37.6
필요하다	165	57.5
보통이다	9	3.1
별로 필요하지 않다	4	1.4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0.4
전체	287	100.0

<그림 9> 양육하는 여성(경력단절 여성 포함)의 역량 강화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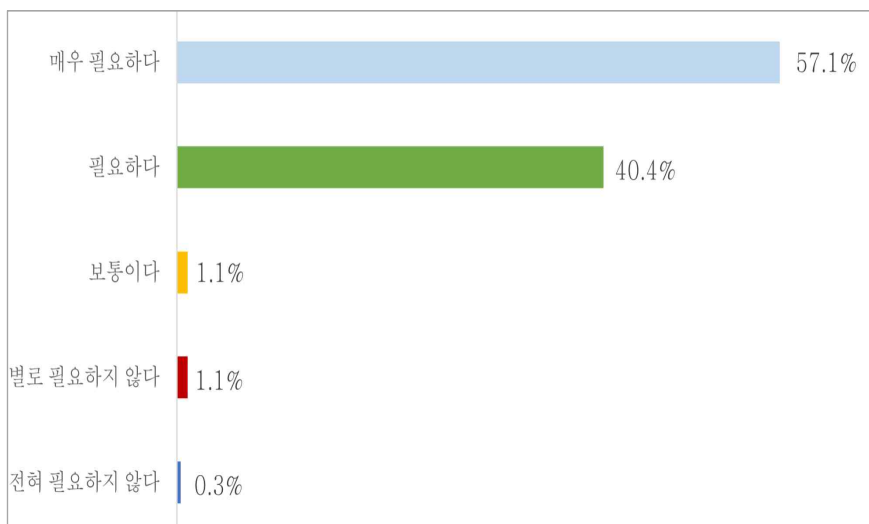
5.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필요성

‘양육하는 여성(경력단절 여성 포함)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매우 필요하다’가 164명(57.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필요하다’ 116명(40.4%), ‘보통이다’ 3명(1.1%), ‘별로 필요하지 않다’ 3명(1.1%), ‘전혀 필요하지 않다’ 1명(0.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9>와 맥락을 같이 하는 문항으로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로 유추된다.

<표 12> 양육하는 여성(경력단절 여성 포함)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필요 정도

구분	인원(명)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64	57.1
필요하다	116	40.4
보통이다	3	1.1
별로 필요하지 않다	3	1.1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0.3
전체	287	100.0

<그림 10> 양육하는 여성(경력단절 여성 포함)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필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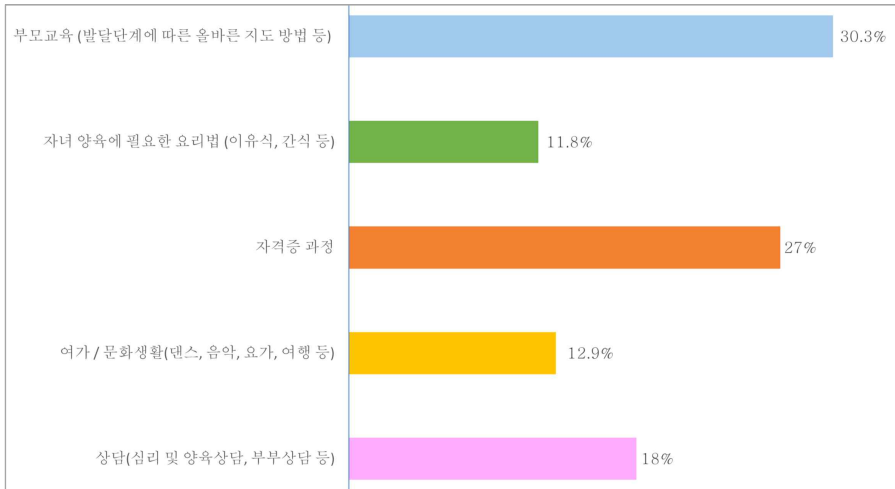
6. 역량 강화의 필요 영역

<표 12>에서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283명(98.6%) 중 ‘역량 강화 필요 영역’에 대해 중복 응답한 결과, ‘부모교육(발달단계에 따른 올바른 지도 방법 등)’이 138명(30.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자격증 과정(그림책감정코칭, 디지털 관련, 바리스타, 제빵 등)’ 123명(27%), ‘상담(심리 및 양육, 부부 등)’ 82명(18%), ‘여가/문화생활(댄스, 음악, 요가, 여행 등)’ 59명(12.9%), 자녀 양육에 필요한 요리법(이유식, 간식 등) 54명(11.8%)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 강화 필요 영역

구분	인원(명)	퍼센트(%)
부모교육 (발달단계에 따른 올바른 지도 방법 등)	138	30.3
자녀 양육에 필요한 요리법 (이유식, 간식 등)	54	11.8
자격증 과정(그림책감정코칭, 디지털 관련, 바리스타, 제빵사 등)	123	27
여가 / 문화생활(댄스, 음악, 요가, 여행 등)	59	12.9
상담(심리 및 양육상담, 부부상담 등)	82	18
전체	456	100.0

<그림 11>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 강화 필요 영역



제3절 응답자의 사회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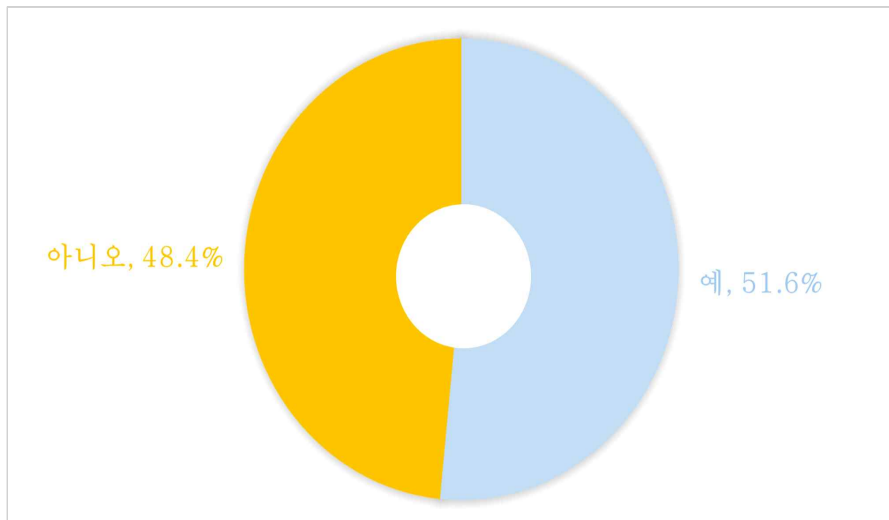
1. 사회참여 현황

조사응답자 중 ‘현재 사회참여(취업/창업 포함)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 148명(51.6%)이 ‘예’, 139명(48.4%)이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표 14> 사회참여(취업/창업 포함) 현황

구분	인원(명)	퍼센트(%)
예(참여한다)	148	51.6
아니오(참여하지 않는다)	139	48.4
전체	287	100.0

<그림 12> 사회참여(취업/창업 포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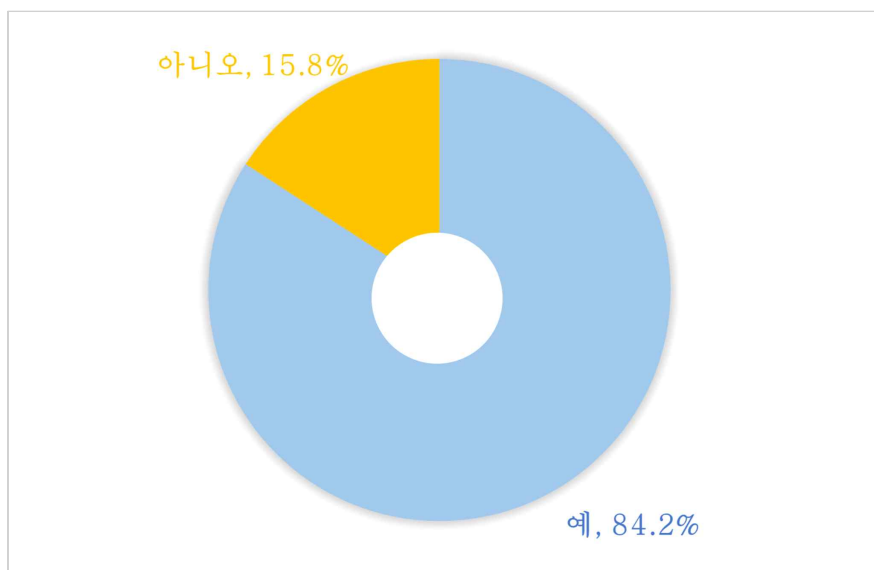
2. 사회참여 경험 여부

<표 14>에서 ‘현재 사회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에 응답한 139명(48.4%)은 ‘과거에 사회 참여(취업/창업 포함)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117명(84.2%)이 ‘예’라고 응답하였고, 22명(15.8%)이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표 15> 과거 사회참여(취업/창업 포함) 경험 여부

구분	인원(명)	퍼센트(%)
예	117	84.2
아니오	22	15.8
전체	139	100.0

<그림 13> 과거 사회참여(취업/창업 포함)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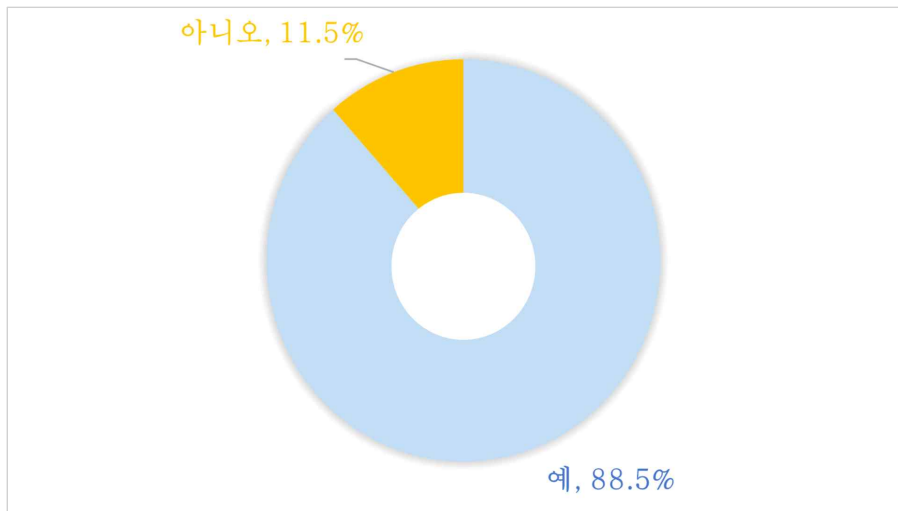
3. 사회참여 계획 여부

‘사회참여(취업/창업 포함) 계획 여부’에 대한 문항에서 ‘예’가 123명(88.5%)이고, ‘아니오’가 16명(11.5%)인 것으로 보아 양육하는 여성의 과반수 이상이 향후 사회참여(취업/창업 포함)에 대해 긍정적으로 사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6> 사회참여(취업/창업 포함) 계획 여부

구분	인원(명)	퍼센트(%)
예(계획이 있다)	123	88.5
아니오(계획이 없다)	16	11.5
전체	139	100.0

<그림 14> 사회참여(취업/창업 포함) 계획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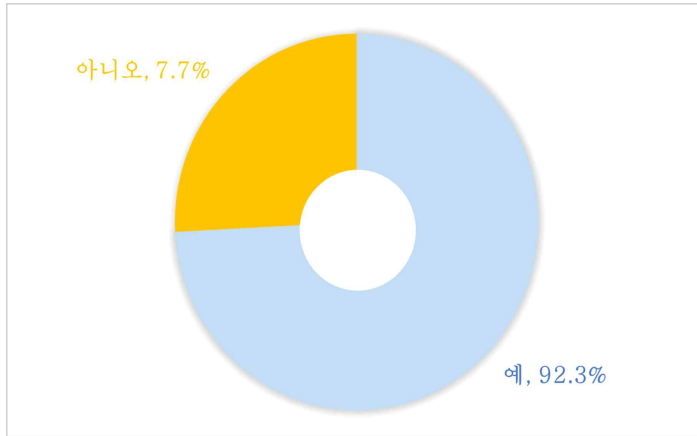
4. 재취업 시 어려움

조사응답자 중 ‘사회참여(취업/창업 포함) 계획 시, 재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해 265명(92.3%)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2명(7.7%)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재취업 시, 양육하는 여성에게 현실적인 제약과 애로사항 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17> 사회참여(취업/창업 포함) 계획 시, 재취업의 어려움 여부

구분	인원(명)	퍼센트(%)
예	265	92.3
아니오	22	7.7
전체	287	100.0

<그림 15> 사회참여(취업/창업 포함) 계획 시, 재취업의 어려움 여부



5. 재취업 시, 어려운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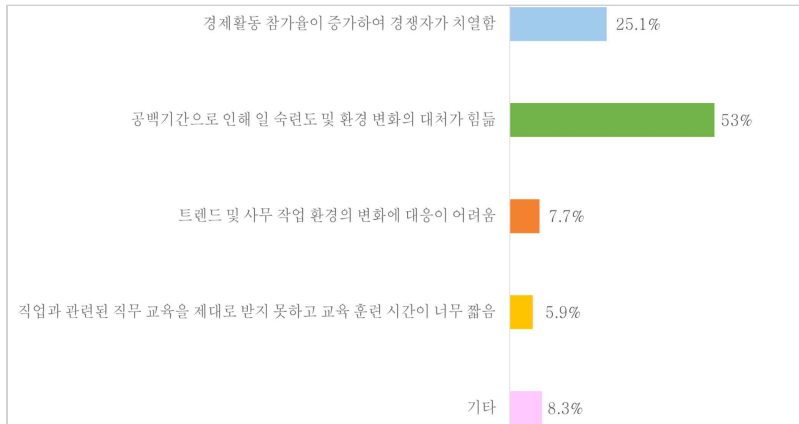
조사응답자가 ‘재취업 시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서 ‘공백 기간으로 인해 일 숙련도 및 환경 변화의 대처가 힘들’에 있다고 응답한 인원이 152명(5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여 경쟁자가 치열함’ 72명(25.1%), ‘트렌드 및 사무 작업 환경 변화에 대응이 어려움’ 22명(7.7%), ‘직업과 관련된 직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교육 훈련 시간이 너무 짧음’ 17명(5.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라고 응답한 24명(8.3%)은 ‘육아로 인해 근무에 지장을 초래함’ 이 19명(6.6%)으로 가장 많았고, 4명(1.4%)이 ‘높은 연령대로 취업 기회가 제한됨’, 1명(0.3%)이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두려움’ 등이 뒤를 이었다.

<표 18> 재취업 시, 어려운 부분

구분		인원(명)	퍼센트(%)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여 경쟁자가 치열함		72	25.1
공백기간으로 인해 일 숙련도 및 환경 변화의 대처가 힘들		152	53
트렌드 및 사무 작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이 어려움		22	7.7
직업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교육 훈련 시간이 짧음		17	5.9
기타	육아로 인해 근무에 지장을 초래함	19	6.6
	높은 연령대로 취업 기회가 제한됨	4	1.4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두려움	1	0.3
전체		287	100.0

<그림 16> 재취업 시, 어려운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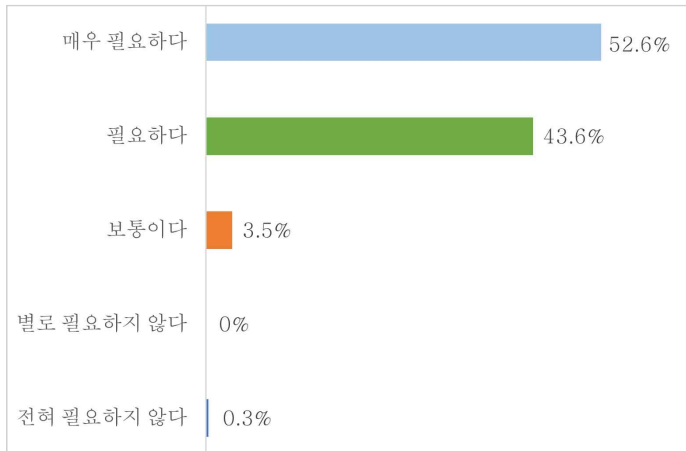
6. 사회참여 확대 지원의 필요성

‘양육하는 여성(경력단절 여성 포함)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매우 필요하다’가 151명(52.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필요하다’ 125명(43.6%), ‘보통이다’ 10명(3.5%), ‘전혀 필요하지 않다’ 1명(0.3%), ‘별로 필요하지 않다’ 0명(0%)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양육하는 여성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는 높은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9> 양육하는 여성의 사회참여(취업/창업 포함) 확대 지원 필요성

구분	인원(명)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151	52.6
필요하다	125	43.6
보통이다	10	3.5
별로 필요하지 않다	0	0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0.3
전체	287	100.0

<그림 17> 양육하는 여성의 사회참여(취업/창업 포함) 확대 지원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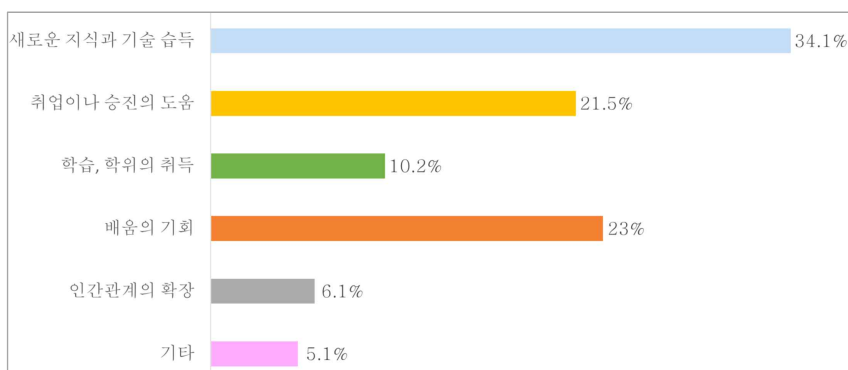
7. 사회참여 확대 지원의 필요 영역

<표 19>에서 양육하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286명(99.7%) 중 확대 지원 필요 영역‘에 대해 중복 응답한 결과,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이 173명(34.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배움의 기회’ 117명(23%), ‘취업이나 승진의 도움’ 109명(21.5%), ‘인간관계의 확장’ 31명(6.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라고 응답한 26명(5.1%) 중 ‘돌발상황에서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양육 도우미나 관련 보육시설 설치 및 확대’가 24명(4.7%), ‘양육자에 대한 사업장 및 기업의 편견 해소’가 1명(0.2%), ‘실질적인 생활비 지원’이 1명(0.2%)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20> 양육하는 여성의 사회참여(취업/창업 포함) 확대 지원 필요 영역 (중복응답 가능)

구분		인원(명)	퍼센트(%)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		173	34.1
취업이나 승진의 도움		109	21.5
학습, 학위의 취득		52	10.2
배움의 기회		117	23
인간관계의 확장		31	6.1
신뢰할 수 있는 양육도우미·보육시설 확대		24	4.7
기타	사업장 및 기업의 편견 해소	1	0.2
	생활비 지원	1	0.2
	전체	508	100.0

<그림 18> 양육하는 여성의 사회참여(취업/창업 포함) 확대 지원 필요 영역 (중복응답 가능)



제4절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 프로그램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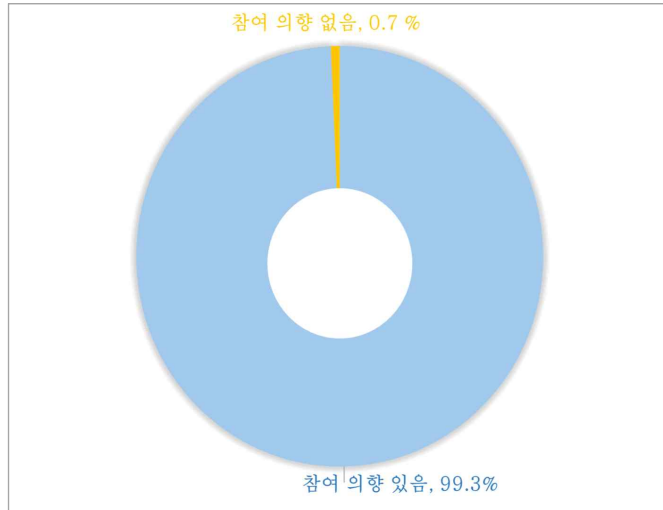
1. 프로그램 참여 의향

조사응답자 중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프로그램 참여 의향 여부’에 대한 응답으로 285명(99.3%)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명(0.7%)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21>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프로그램 참여 의향

구분	인원(명)	퍼센트(%)
참여 의향 있음	285	99.3
참여 의향 없음	2	0.7
전체	287	100.0

<그림 19>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프로그램 참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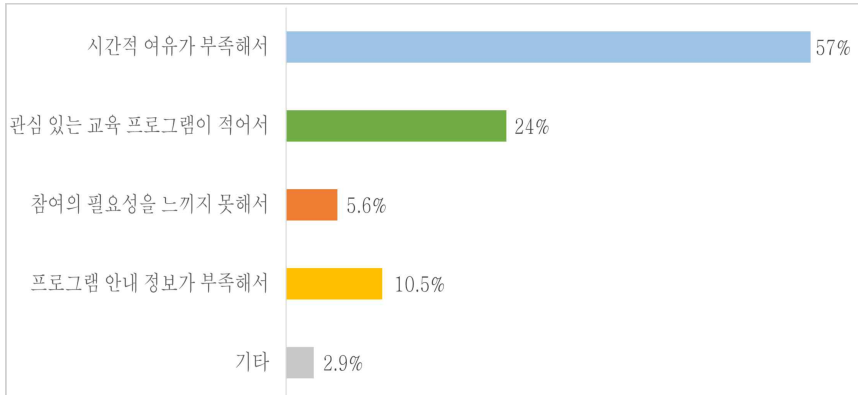
2. 프로그램 불참 시, 사유

조사대상자 중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프로그램 불참 시, 이유를 묻는 문항에 대해 중복 응답한 결과, 245명(57%)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서’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이 103명(24%), ‘관심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적어서’, 45명(10.5%), ‘프로그램 안내 정보가 부족해서’, 24명(5.6%),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기타’ 13명(2.9%)은 ‘비용이 비싸서’,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에 필요한 강좌가 미비해서’, ‘체력이 부족해서’, ‘18시 이후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라고 응답하였다.

<표 22>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프로그램 불참 시, 이유 (중복응답 가능)

구분		인원(명)	퍼센트(%)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서		245	57
관심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적어서		103	24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24	5.6
프로그램 안내 정보가 부족해서		45	10.5
기타	비용이 비싸서	5	1.2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에 필요한 강좌가 미비해서	3	0.7
	체력이 부족해서	3	0.7
	프로그램 시간이 맞지 않아서 (18시 이후 프로그램 부족)	2	0.3
	전체	430	100.0

<그림 20>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프로그램 불참 시, 이유
(중복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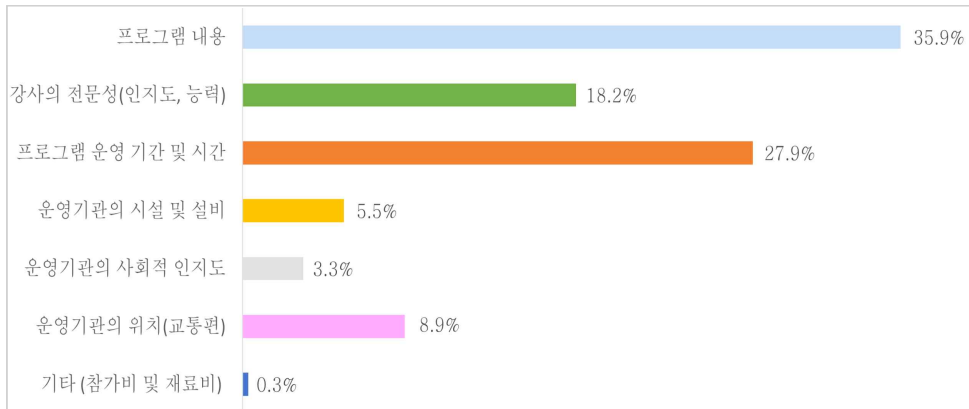
3. 프로그램 선택 시, 고려사항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시, 프로그램 선택의 중요한 고려사항’에 대한 응답은 ‘프로그램 내용’이 227명(35.9%)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 176명(27.9%)으로 ‘운영기간 및 시간’, 세 번째, 115명(18.2%)으로 ‘강사의 전문성(인지도, 능력)’이 뒤를 이었다. 이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적극적으로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표 23>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시, 프로그램 선택의 중요 고려사항 (중복응답 가능)

구분	인원(명)	퍼센트(%)
프로그램 내용	227	35.9
강사의 전문성(인지도, 능력)	115	18.2
프로그램 운영 기간 및 시간	176	27.9
운영기관의 시설 및 설비	35	5.5
운영기관의 사회적 인지도	21	3.3
운영기관의 위치(교통편)	56	8.9
기타 (참가비 및 재료비)	2	0.3
전체	632	100.0

<그림 21>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시, 프로그램 선택의 중요 고려사항 (중복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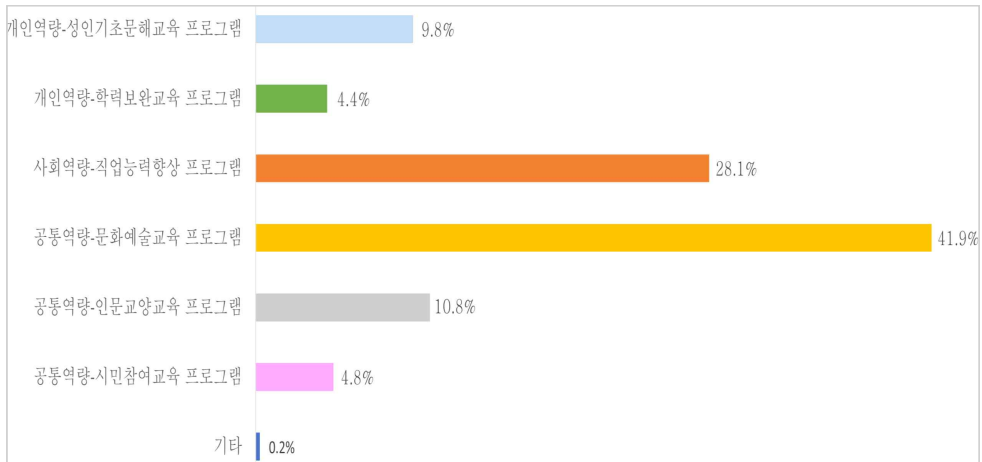
4. 희망 프로그램 영역

조사대상자 중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관련 희망 프로그램’에 대해 중복 응답한 결과, 322명(41.9%)이 ‘공통역량-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두 번째, 216명(28.1%), ‘사회역량-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취업/창업 연결)’, 세 번째, 83명(10.8%), ‘공통역량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관련 희망 프로그램 (중복응답 가능)

구분		인원(명)	퍼센트(%)
개인역량-성인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		75	9.8
개인역량-학력보완교육 프로그램		34	4.4
사회역량-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취업/창업 연결)		216	28.1
공통역량-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322	41.9
공통역량-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83	10.8
공통역량-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37	4.8
기타	대인관계 형성 프로그램	1	0.1
	자연친화 프로그램	1	0.1
전체		768	100.0

<그림 22>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관련 희망 프로그램
(중복응답 가능)



5. 희망 프로그램의 세부 영역

<표 24>에서 응답자가 선택한 희망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영역의 요구도는 다음과 같다. ‘공통역량-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322명(41.9%)은 세부 영역의 요구도에서 ‘미술(공예)활동’이 67명(3.11%)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 ‘홈패션’이 58명(2.68%), 세 번째, ‘악기교실’이 54명(2.5%)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사회역량-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취업/창업 연결)’에 응답한 216명(28.1%)은 세부 영역의 요구도에서 ‘컴퓨터자격 취득과정’이 86명(3.97%)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 ‘바리스타 양성과정’ 73명(3.37%), 세 번째, ‘직무향상교육’ 59명(2.73%)으로 나타났다.

‘공통역량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83명(10.8%)은 세부 영역의 요구도에서 64명(2.96%)으로 ‘어학강좌’ 비중이 높았고, 그 다음이 ‘정보화교육’ 61명(2.82%), ‘개인생애발달강좌’ 40명(1.85%)으로 응답하였다. <표 13>에서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 강화 필요 영역으로 ‘부모교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양육에 놓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양육 여성의 높은 욕구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양육하는 여성의 실제적인 최고의 욕구는 양육 중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적절히 해결해가는 바람직한 양육자로서 성장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5> 희망 프로그램 (24번 응답 참조)의 세부 영역 요구도(중복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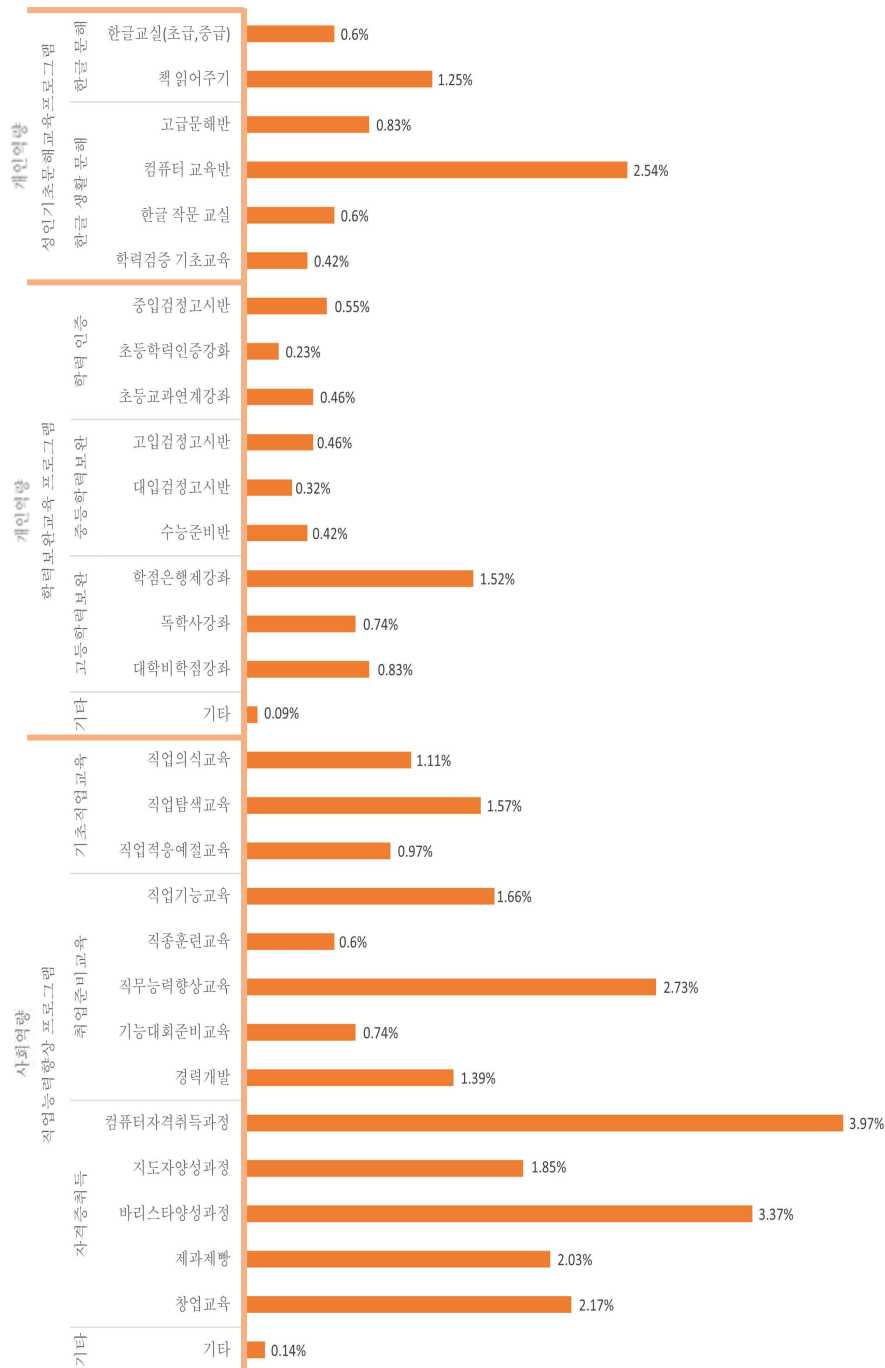
구분			인원(명)	퍼센트(%)	
개 인 역 량	성인 기초 문해 교육 프로그램	한글 문해 프로그램	한글교실(초급,중급)	13	0.6
			책 읽어주기	27	1.25
	한글 생활 문해 프로그램		고급문해반	18	0.83
			컴퓨터 교육반	55	2.54
			한글 작문 교실	13	0.6
			학력검증을 위한 기초교육	9	0.42
	총 계		135	6.24	
	개 인 역 량	학력보완 교육 프로그램	학력 인증프로그램	중입검정고시반	12
초등학력인증강좌				5	0.23
초등교과연계강좌				10	0.46
중등학력보완 프로그램			고입검정고시반	10	0.46
			대입검정고시반	7	0.32
			수능준비반	9	0.42
고등학력보완 프로그램			학점은행제강좌	33	1.52
			독학사강좌	16	0.74
			대학비학점강좌	18	0.83
기타 (외국어강좌)		2	0.09		
총 계		122	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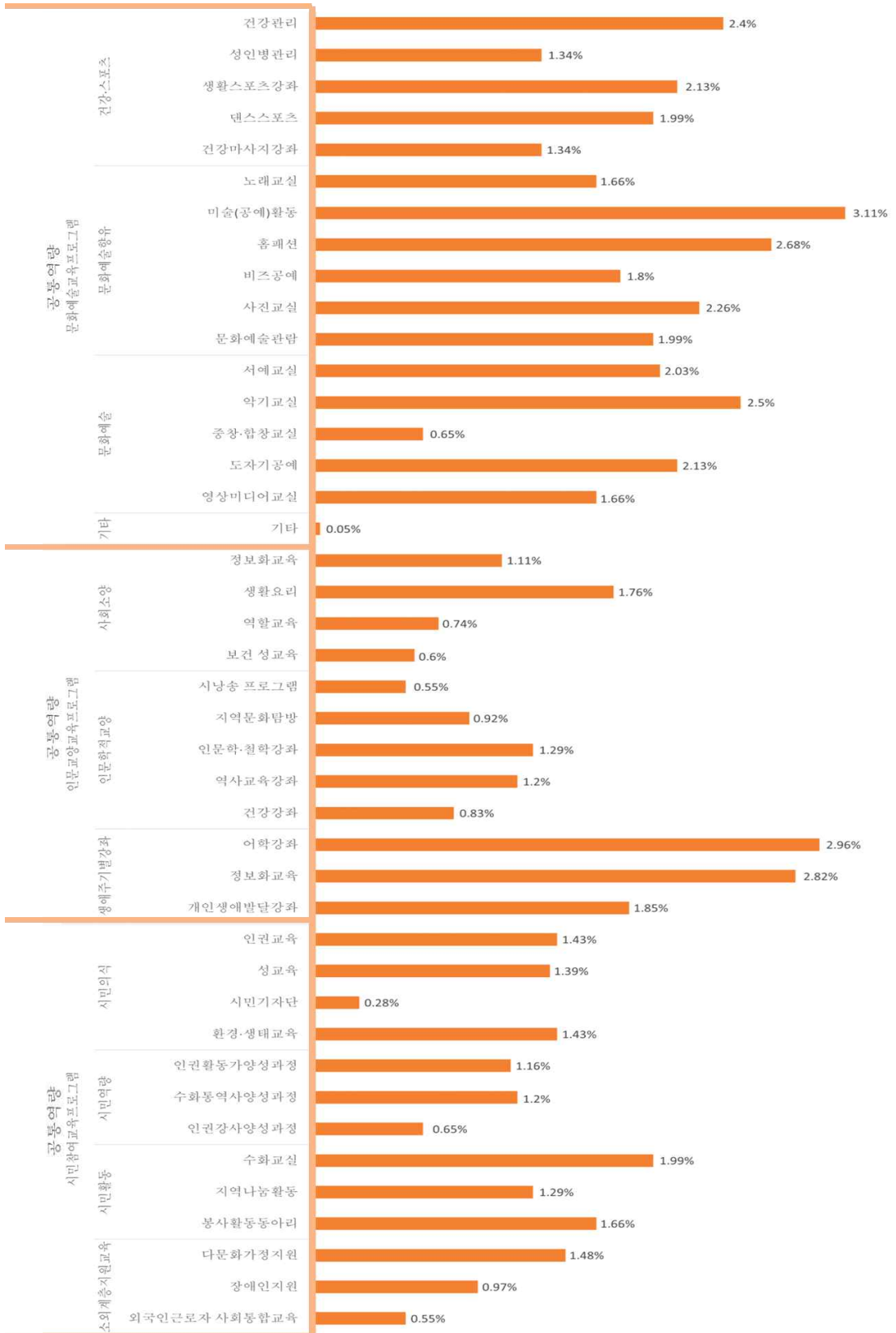
사 회 역 량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기초직업교육 프로그램	직업의식교육	24	1.11
			직업탐색교육	34	1.57
			직업적응예절교육	21	0.97
		취업준비교육 프로그램	직업기능교육	36	1.66
			직종훈련교육	13	0.6
			직무능력향상교육	59	2.73
			기능대회준비교육	16	0.74
			경력개발	30	1.39
		자격증취득 프로그램	컴퓨터자격취득과정	86	3.97
			지도자양성과정	40	1.85
			바리스타양성과정	73	3.37
			제과제빵	44	2.03
			창업교육	47	2.17
		기타 (요리사, 회계·세무자격, 공예사 취득과정)		3	0.14
		총계		526	24.3

구분		인원(명)	퍼센트(%)		
공 통 역 량	건강·스포츠 프로그램	건강관리	52	2.4	
		성인병관리	29	1.34	
		생활스포츠강좌	46	2.13	
		댄스스포츠	43	1.99	
		건강마사지강좌	29	1.34	
	문화 예술 교육 프로 그램	문화예술향유 프로그램	노래교실	36	1.66
			미술(공예)활동	67	3.11
			홈패션	58	2.68
			비즈공예	39	1.8
			사진교실	49	2.26
		문화예술 숙련프로그램	문화예술관람	43	1.99
			서예교실	44	2.03
			악기교실	54	2.5
			중창·합창교실	14	0.65
			도자기공예	46	2.13
	기타	영상미디어교실	36	1.66	
		타로	1	0.05	
		총 계	686	31.72	
		인문 교양 교육 프로 그램	사회소양 프로그램	정보화교육	24
	생활요리			38	1.76
	역할교육			16	0.74
	인문학적교양 프로그램		보건 성교육	13	0.6
			시낭송 프로그램	12	0.55
지역문화탐방			20	0.92	
인문학·철학강좌			28	1.29	
역사교육강좌			26	1.2	
건강강좌			18	0.83	
어학강좌			64	2.96	
생애주기별강좌 프로그램	정보화교육		61	2.82	
	개인생애발달강좌		40	1.85	
	총 계	360	16.63		

구분		인원(명)	퍼센트(%)	
공 통 역 량	시민의식프로그램	인권교육	31	1.43
		성교육	30	1.39
		시민기자단	6	0.28
		환경·생태교육	31	1.43
	시민역량 프로그램	인권활동가양성과정	25	1.16
		수화통역사양성과정	26	1.2
		인권강사양성과정	14	0.65
		수화교실	43	1.99
	시민활동프로그램	지역나눔활동	28	1.29
		봉사활동동아리	36	1.66
		다문화가정지원	32	1.48
		장애인지원	21	0.97
	소외계층지원교육	외국인근로자 사회통합교육	12	0.55
		총계	335	15.48
총계		2,164	100.0	

<그림 23> 희망 프로그램(24번 응답 참조)의 세부 영역 요구도 (중복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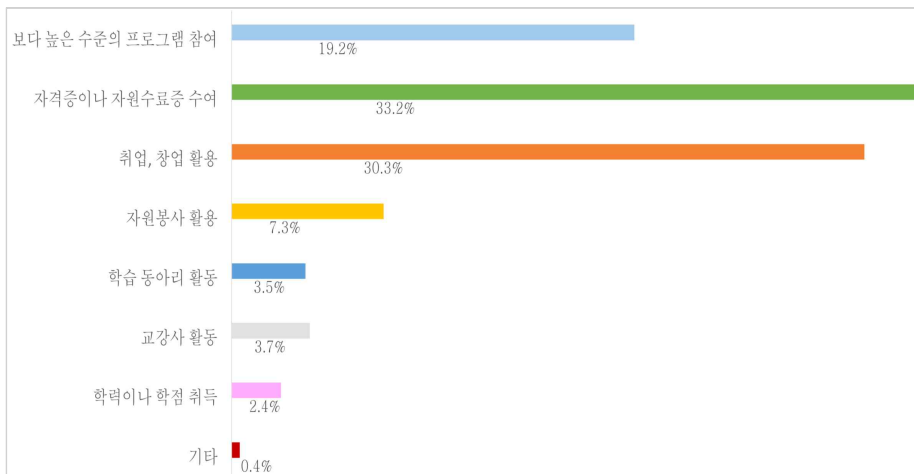
6. 프로그램의 선택 시, 이유

<표 25>와 같이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를 중복 응답한 결과, 151명(27.3%)이 ‘취업이나 진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고, 108명(19.5%)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배우고 알 수 있어서’, 88명(15.9%)이 ‘풍요로운 여가 및 취미생활을 위하여’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단순한 취미와 흥미를 넘어서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참여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작용한 것으로 사료될 수 있다.

<표 26> 프로그램 선택 이유(중복응답 가능)

구분	인원(명)	퍼센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85	15.3
취업이나 진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51	27.3
풍요로운 여가 및 취미생활을 위하여	88	15.9
배운다는 그 자체가 즐거워서	77	13.9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배우고 알 수 있어서	108	19.5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43	7.7
기타(소속감을 경험하고 자존감을 향상하기 위하여)	2	0.4
전체	554	100.0

<그림 24> 프로그램 선택 이유 (중복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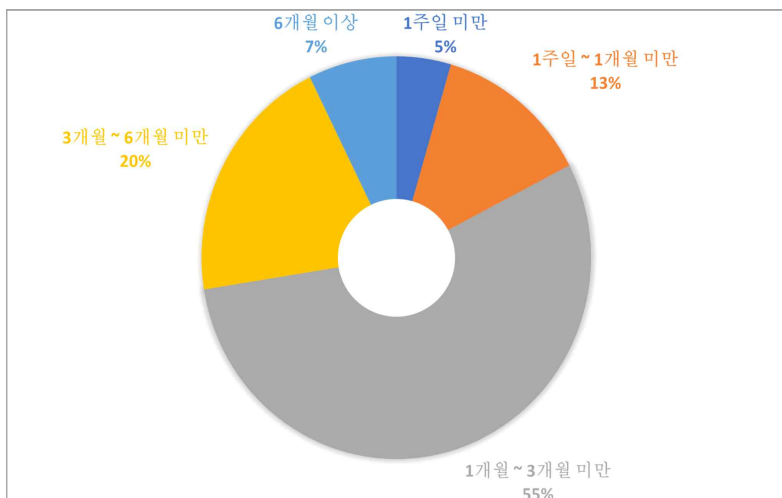
7. 프로그램 기간

조사응답자 중 ‘프로그램 운영 시, 적절한 기간’에 대한 질문에 ‘1개월~3개월 미만’이 158명(55.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개월~6개월 미만’ 58명(20.2%), ‘1주일~1개월 미만’ 37명(12.9%), ‘6개월 이상’ 21명(7.3%), ‘1주일 미만’ 13명(4.5%) 순으로 나타났다.

<표 27> 프로그램 운영 시, 적절한 기간

구분	인원(명)	퍼센트(%)
1주일 미만	13	4.5
1주일 ~ 1개월 미만	37	12.9
1개월 ~ 3개월 미만	158	55.1
3개월 ~ 6개월 미만	58	20.2
6개월 이상	21	7.3
전체	287	100.0

<그림 -257> 프로그램 운영 시, 적절한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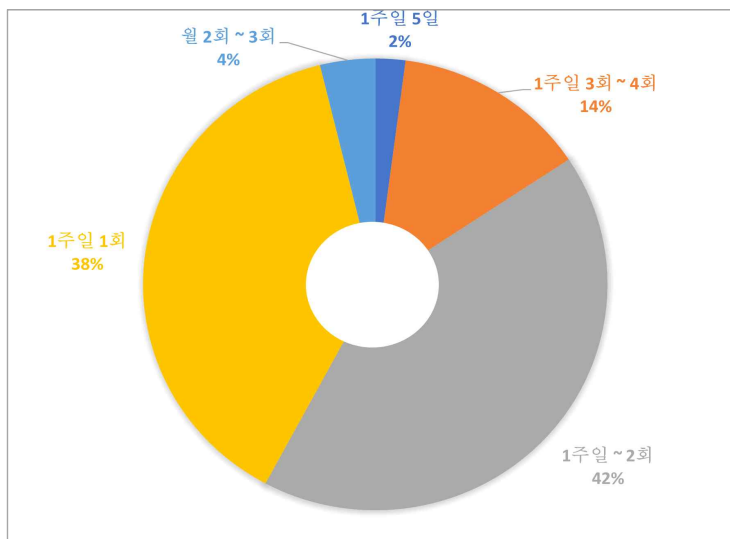
8. 프로그램 운영 횟수

‘프로그램 운영 시, 적절한 횟수’에 대한 응답은 ‘1주일 2회’가 121명(42.2%)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 ‘1주일 1회’가 110명(38.3%)이었으며 세 번째 ‘1주일 3회~4회’가 39명(13.6%)으로 나타났다.

<표 28> 프로그램 운영 시, 적절한 횟수

구분	인원(명)	퍼센트(%)
1주일 5일	6	2.1
1주일 3회 ~ 4회	39	13.6
1주일 ~ 2회	121	42.2
1주일 1회	110	38.3
월 2회 ~ 3회	11	3.8
전체	287	100.0

<그림 26> 프로그램 운영 시, 적절한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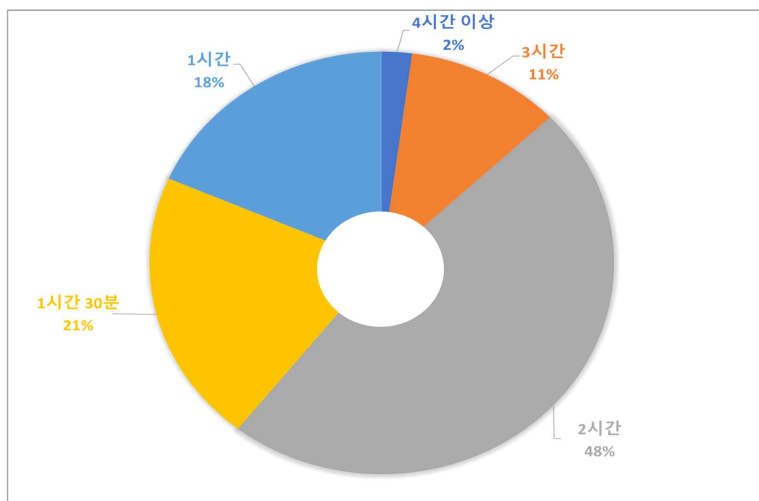
9. 프로그램 운영 시간

조사응답자 중 ‘프로그램 운영 시, 적절한 시간’에 대한 질문에서는 ‘2시간’이 137명(47.7%)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1시간 30분’ 60명(20.2%), ‘1시간’ 53명(12.9%), ‘3시간’ 31명(10.8%), ‘4시간 이상’ 6명(2.1%)이 뒤를 이었다.

<표 29> 프로그램 운영 시, 적절한 시간 정도

구분	인원(명)	퍼센트(%)
4시간 이상	6	2.1
3시간	31	10.8
2시간	137	47.7
1시간 30분	60	20.9
1시간	53	18.5
전체	287	100.0

<그림 27> 프로그램 운영 시, 적절한 시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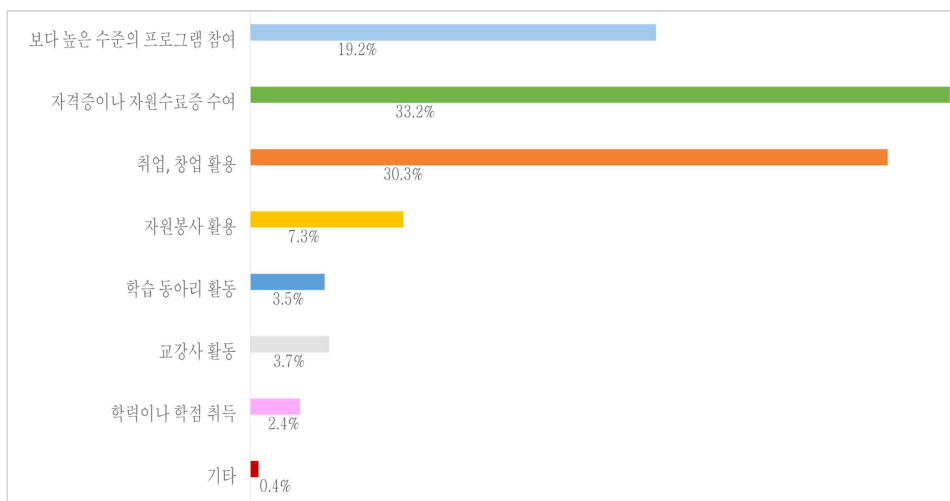
10. 프로그램 이수 후, 활용 방안

‘프로그램 이수 후, 활용 방안’에 대해 중복 응답한 결과 ‘자격증이나 수료증 수여’가 169명(33.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취업, 창업 활용’에 154명(30.3%) 응답하였으며, ‘보다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 참여’ 98명(19.2%), ‘자원봉사 활용’ 37명(7.3%), ‘교강사 활동’ 19명(3.7%) 순으로 나타났다.

<표 30> 프로그램 이수 후, 활용 방안(중복응답 가능)

구분	인원(명)	퍼센트(%)	
보다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 참여	98	19.2	
자격증이나 수료증 수여	169	33.2	
취업, 창업 활용	154	30.3	
자원봉사 활용	37	7.3	
학습 동아리 활동	18	3.5	
교강사 활동	19	3.7	
학력이나 학점 취득	12	2.4	
기타	자기 만족 및 성취감	1	0.2
	실생활 적용	1	0.2
전체	509	100.0	

<그림 28> 프로그램 이수 후, 활용 방안(중복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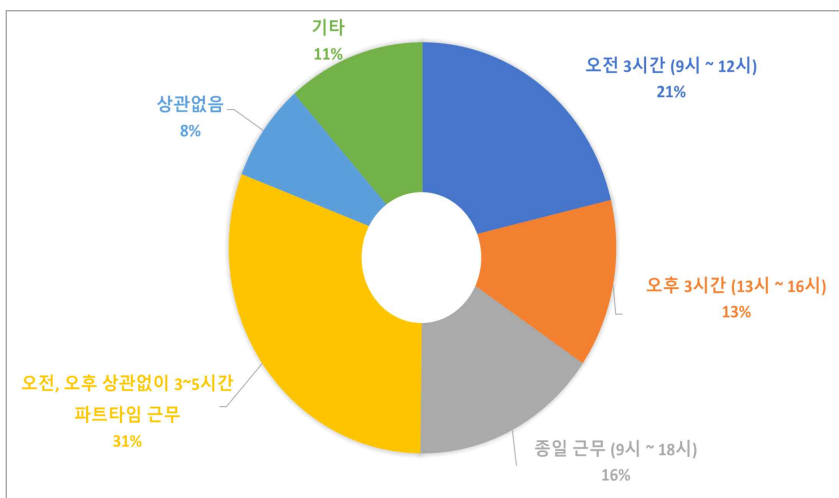
11. 희망 근무 시간

‘사회참여(취업/창업) 시, 희망 근무 시간’에 대한 응답으로는 ‘오전, 오후 상관없이 3~5시간 파트타임 근무’가 88명(30.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오전 3시간(9시~12시)’ 61명(21.3%), ‘종일 근무’ 45명(15.7%), ‘오후 3시간(13시~16시)’ 38명(13.2%)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기타’에 응답한 33명(11.4%)은 ‘오전 10시~오후 16시(어린이집 등교 및 하원 시간)’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31> 사회참여(취업/창업) 시, 희망 근무 시간

구분		인원(명)	퍼센트(%)
오전 3시간 (9시 ~ 12시)		61	21.3
오후 3시간 (13시 ~ 16시)		38	13.2
종일 근무 (9시 ~ 18시)		45	15.7
오전, 오후 상관없이 3~5시간 파트타임 근무		88	30.7
상관없음		22	7.7
기타	오전 10시 ~ 오후 12시	1	0.3
	오전 10시 ~ 오후 16시	31	10.8
	오후 14시 ~ 오후 22시	1	0.3
전체		287	100.0

<그림 29> 사회참여(취업/창업) 시, 희망 근무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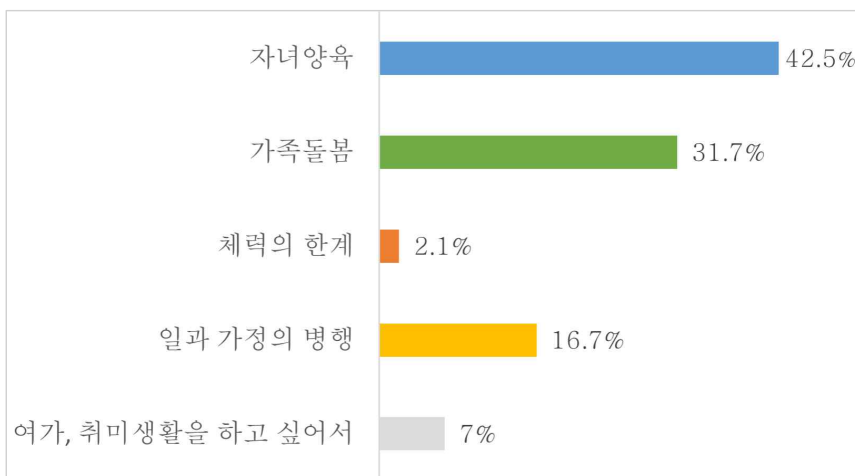
12. 파트타임 근무 희망 사유

‘파트타임 근무 희망 이유’에 대해서는 ‘자녀양육’이 122명(42.5%)으로 가장 많았고, 91명(31.7%), ‘가족돌봄’, 48명(16.7%), ‘일과 가정의 병행’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 파트타임 근무 희망 이유

구분	인원(명)	퍼센트(%)
자녀양육	122	42.5
가족돌봄	91	31.7
체력의 한계	6	2.1
일과 가정의 병행	48	16.7
여가, 취미생활을 하고 싶어서	20	7
전체	287	100.0

<그림 30> 파트타임 근무 희망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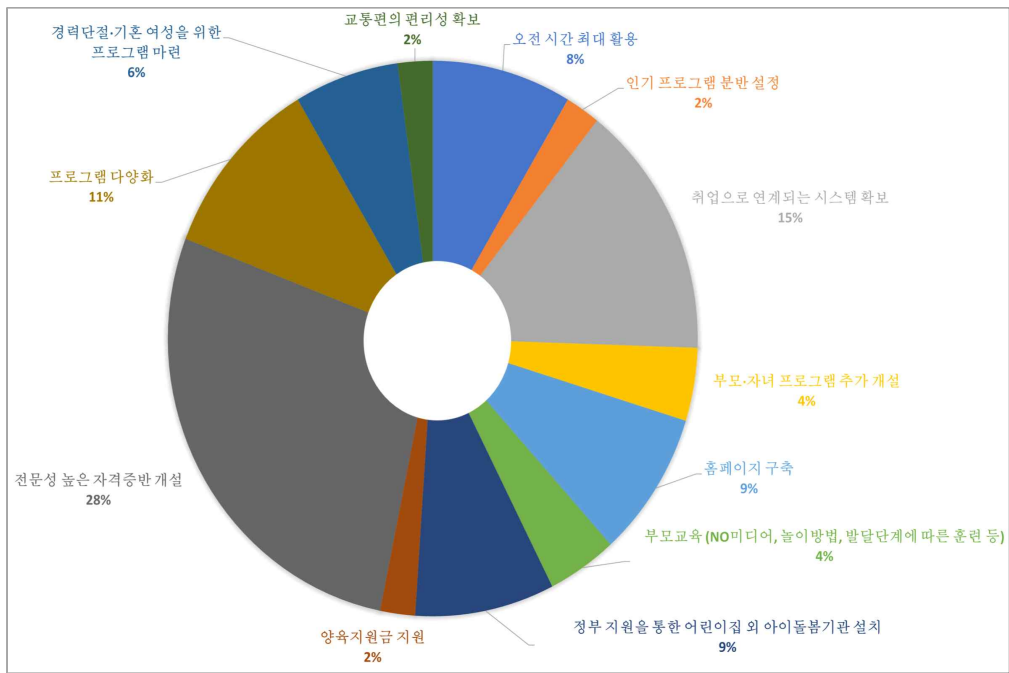
13. 건의사항

‘프로그램 건의사항’에 대한 응답에서는 ‘전문성 높은 자격증반 개설’이 13명(27.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취업으로 연계되는 시스템 확보’ 7명(14.9%), ‘프로그램 다양화’ 5명(10.6%) 근소한 차이로 ‘오전시간 최대 활용’, ‘홈페이지 구축’, ‘정부 지원을 통한 어린이집 외 아이돌봄기관 설치’ 등이 4명(2.1%)으로 나타났다.

<표 33> 프로그램 건의사항

구분	인원(명)	퍼센트(%)
오전 시간 최대 활용	4	8.5
인기 프로그램 분반 설정	1	2.1
취업으로 연계되는 시스템 확보	7	14.9
부모·자녀 프로그램 추가 개설	2	4.3
홈페이지 구축	4	8.5
부모교육 (NO미디어, 놀이방법, 발달단계에 따른 훈련 등)	2	4.3
정부 지원을 통한 어린이집 외 아이돌봄기관 설치	4	8.5
양육지원금 지원	1	2.1
전문성 높은 자격증반 개설	13	27.7
프로그램 다양화	5	10.6
경력단절·기혼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3	6.4
교통편의 편리성 확보	1	2.1
전체	47	100.0

<그림 31> 프로그램 건의사항



제3장 포커스그룹 인터뷰

제1절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프로그램 개발 제안을 위한 내용에 좀 더 풍성한 자료수집과 심도있는 해석 및 논의를 더하고자, 대덕구육아복합마더센터를 이용하는 양육하는 여성 15명을 표집하여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는 양적 자료에 의존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생동감 있고 실질적인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양적 분석에서는 자료수집 시 샘플이 더 큰 인구집단에 일반화하기 위해서 개인마다 표집 될 수 있는 확률이 동등하게 부여되는 무작위 표집을 적용하지만, 질적 자료수집에서는 특별한 주제 또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개인을 선택해야 하므로 표집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한다(Creswell, 2003). 이처럼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목적에 적합한 핵심적인 이슈들을 찾아낼 수 있으므로 연구참여자를 목표 표집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Patton, 2002). 왜냐하면 양적 분석에서 얻은 결과와 관련하여 보다 풍부하고 깊이 있게 인터뷰해줄 수 있는 대상자를 참여자로 선정해야 하는 혼합연구방법에서는 이와 같은 목표 표집이 가장 적당하기 때문이다(조형숙, 이효정, 2009).

본 연구에서 인터뷰 조사를 통한 질적 연구의 목표는 양적 연구결과와 질적 연구의 결과 간에 일치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양적 연구결과에 대한 보충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정교하고 심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4>와 같다.

<표 36>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번	이름	연령	학력	자녀연령	자녀 수	취업상황
1	A어머니	1990/32	대졸	3세	1	육아휴직
2	B어머니	1989/33	대졸	5세	1	-
3	C어머니	1976/46	대졸	6세/3세	2	-
4	D어머니	1979/44	전문대졸	4세	1	-
5	E어머니	1993/29	대졸	2세	1	육아휴직
6	F어머니	1989/33	대졸	2세	1	-
7	G어머니	1988/33	전문대졸	2세	1	-
8	H어머니	1983/39	전문대졸	2세	1	-
9	I어머니	1989/33	대졸	3세	1	-
10	J어머니	1983/39	대졸	2세	1	-
11	K어머니	1994/28	대졸	2세	1	육아휴직
12	L어머니	1986/36	대졸	2세	1	-
13	M어머니	1992/30	전문대졸	2세	1	-
14	N어머니	1983/39	대졸	3세	1	-
15	O어머니	1985/37	전문대졸	3세	1	-

제2절 연구절차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

한 인식, 경험,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하였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의 지원 프로그램 요구에 대한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2023년 8월 16일부터 2023년 9월 8일까지 진행되었다.

인터뷰 전,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질문목록을 미리 제공하여 연구참여자가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였고 시간은 평균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시작하여 자유롭게 면담 내용을 확장해 나가는 비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면담 시,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노력하였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재질문하여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였다. 면담은 각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면담이 끝난 후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면담이 이루어졌다.

<표 37> 프로그램 개발제안을 위한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목록(안)

질문 범주	질문 내용
자녀양육	▪ 귀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이십니까? ▪ 자녀를 양육하신다면 자녀의 연령은 어떠합니까? ▪ 자녀양육이라는 의미에서 양육받는 자녀란 그 연령이 어느 정도까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의 역량	▪ 귀하께서 현재 개인의 역량 정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의 역량이 충분하시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부분에서 충분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떠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참여 및 지원

- 귀하께서는 현재 사회참여(취업/창업)를 하고 계십니까?
- 현재 사회참여(취업/창업)를 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과거 사회참여 경험이 있으십니까?
- 귀하께서는 앞으로 사회참여(취업/창업)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 귀하께서는 양육하는 여성으로서, 사회참여(취업/창업)를 계획하실 때 재취업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 귀하께서는 양육하는 여성으로서, 사회참여(취업/창업)를 다시 시작하실 때, 느끼신(느꼈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귀하는 양육하는 여성의 사회참여(취업/창업)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양육하는 여성의 사회참여(취업/창업)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역량강화 및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

- 귀하는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귀하가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면, 프로그램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 귀하가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면, 어떤 프로그램에 가장 참여하고 싶습니까?
- 선택하신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프로그램의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프로그램 진행 횟수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프로그램의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프로그램 이수 후, 학습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까?
- 프로그램 이수 후, 사회참여(취업/창업)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의 근무를 원하십니까?

근무시간 및 건의사항

- 프로그램 이수 후, 사회참여(취업/창업)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의 근무를 원하십니까?
- 종일 근무가 아닌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원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지원 프로그램 개설 관련하여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에 건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인터뷰는 양육하는 여성이면서 대덕구육아복합마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공동육아나눔터 품앗이 그룹원들로 활동 중인 대덕구육아복합마더센터의 면담 공간에서 2명~4명의 그룹으로 이루어졌으며, 반구조화 형식의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2023년 8월 16일부터 2023년 9월 8일에 걸쳐 5그룹으로 진행되었고, 사전에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들과 미리 약속한 후 대덕구육아복합마더센터 면담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영유아 자녀들과 함께 면담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면담 진행에 최대한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 영아들이 자유로이 놀이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진행하는 등 세심한 배려와 주의를 기울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되도록 자녀들이 어린이 집에 있는 시간인 오전을 이용해서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각 그룹당 1회 진행하였으며, 한 그룹당 평균 1시간~1시간 반 정도 소요되었다.

반 구조화 형식으로 진행된 인터뷰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터뷰 조사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에게 약 5분 내외로 연구 목적과 내용, 그리고 인터뷰 중간에 참여 철회가 가능한 점 및 익명성, 비밀유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인터뷰 내용의 녹음 목적에 대해 알리고 문서화된 설명문 사본을 참여자에게 제공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 동의서에 자발적인 자필 서명을 받은 후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지 응답을 받았다. 인터뷰 참여자에게 인터뷰의 시작을 알린 후 인터뷰를 시작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되었다. 녹음과 동시에 연구자들은 주요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 노트에 메모하였다.

인터뷰가 종료된 후에는 녹음된 내용을 바로 전사하여 숙독하였으며 현

장 노트에 기록한 메모 내용을 정리하였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들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질적 연구 수집자료는 인터뷰 내용을 녹음한 파일과 전사본,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작성한 현장 노트 등이다. 수집된 자료 목록은 <표 36>과 같다.

<표 38> 자료수집 목록

자료목록	내용	분량(A4page)
FGI	녹음자료	321분
	녹음자료 전사본	39장
연구자 저널	연구자의 면담 진행 중 또는 이후에 생각이나 느낌을 작성함	14장

질적연구에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은 수집된 자료를 조직화하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단위로 분리한 다음, 자료 안에 숨어 있는 패턴을 찾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Bogdan & Biklen, 2011). 그런즉 본 연구의 질적 자료에 대한 분석과정은 인터뷰 내용에 대한 모든 녹음 기록을 전사하고 출력하여 원자료로 만들어 정리한 후, 작성된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연구문제와 부합하는 이야기들을 추려내고 연구참여자들이 주로 언급한 공통된 내러티브와 줄거리, 주제 등을 찾아냈다. 다음으로 자료를 코딩하는 과정으로 앞에서 도출한 자료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범주와 하위 범주, 개념으로 조직화하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가장 잘 나타내줄 수 있는 제목을 붙여 의미를 생성하도록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해석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써 참여자들의 실제 인터뷰 내용을 발췌하여 제시하였다(Creswell, 2003).

흔히 질적연구의 신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최일선, 홍용희,

2003 재인용)해야 할 것이다. 첫째,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생성하고 삼각측정을 통해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한다. 둘째,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관계를 유지하여 참여 관찰자로서의 자세를 망각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 본 연구에 대한 외부 전문가 및 연구 동료자들과의 지속적인 피드백 과정과 의견교환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자들과 연구참여자들 간 인터뷰 내용과 자료 분석 및 해석 내용 등에 대한 반복적인 검토를 2회 이상 시행하여 분석된 자료 내용과 해석 내용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인터뷰 전에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둘째, 인터뷰 내용 중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나 연구자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통화를 통해 해당 참여자의 의견을 다시 확인하여 진술의 사실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이러한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은 교육 전문가 2인, 연구자문위원 2인 등과 지속적으로 의견교환 및 검토 요청 등을 통해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3절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제안을 위한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해석하고 논의하기 위해, 대덕구육아복합마더센터 이용자 중 양육하는 여성 15명을 5그룹으로 나누어 이들 대상의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주요 주제들

을 범주화시킨 후 각각의 세부 제목을 붙이면서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에 따른 각 주제와 그에 따른 세부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9> FGI 분석결과

주제	세부주제
꼬부랑길 여정 :초보 양육여성에서 경력 양육여성으로!!	▪ 육아는 내 바닥을 보는 일 ▪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 나의 주홍글씨, ‘경단녀’
프로그램의 요구	▪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필요 ▪ 나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필요 ▪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필요
프로그램의 바람	▪ 프로그램 희망시간 ▪ 학습결과와 활용 ▪ 건의사항

1. 꼬부랑길 여정 : 초보 양육 여성에서 경력 양육 여성으로!!

본 연구의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양육하는 여성들 중 주로 영유아 시기의 첫 아이를 양육 중에 있는 초보 양육 여성들 대부분은 시시각각 수시로 직면하는 자녀양육 관련한 문제 해결에 대해 감당키 어려운 책무성에 대한 부담감과 이로 인한 양육 스트레스, 잦은 실패의 경험으로 인한 자기 효능감 저하 및 자괴감, 우울감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 밖의 다른 개인역량을 함양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었다. 한편, 자녀양육 관련하여 수많은 노력과 도전을 통한 시행착오를 거친 경력 양육 여성들 즉, 첫째 자녀는 이미 초등 이상으로 성장했고 지금은 영유아 시기의 둘째나 셋째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된 여성들은 자녀양육으로 인한 육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그간 양육경력을 쌓아가며 서서히 극복했노라 고백했다.

덕분에 본인의 자녀양육에 관련된 정보나 실천적 역량 수준은 다른 분야의 역량들에 비해 높다고 인식했다. 그래서 베이비시터 등 양육 관련 직무로의 사회참여는 기회만 된다면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드러냈고, 다양한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등을 지원받는 것에 상당한 관심을 나타냈다.

요컨대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들은 초보 양육 여성에서 경력 양육 여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은 꼬부랑길의 여정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잘 극복해간다면 자녀양육에 대한 관련 중요 정보와 양육 관련한 실천적 역량을 갖춘 양육자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1) 육아는 내 바닥을 보는 일

양육하는 여성들 대부분은 자녀양육에 자신이 가진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다하려는 심리적인 측면으로의 열의와 의지는 그 누구보다 충만할 것이라고 자신하였다. 그러나 자녀양육에 대한 역량 수준 인식에 있어서는 초보 양육 여성과 경력 양육 여성들 간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저는 육아는 많이 물어보고 찾아보고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해주려고 계속 노력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에게 점수를 주면서 제가 저를 격려하고 있어요.

(H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3)

저는 일단 아이를 낳고 하면서 제 일이 없어졌고 제 개인 일은 아예 할 생각도 못한 채 아이한테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에게 충분히 할 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I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4)

양육은 정말 어려워요. 그중에서도 밥 안 먹는 게 가장 힘들다면 힘들구요. 계획하여 임신하고 태어난 아이예요. 처음부터 육아는 매우 힘들거라는 얘기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어서 단단히 각오도 했고 최선을 다하고도 있긴 하죠. 앞으로도 그럴거구요. 아무리 힘들어도....!!!

(F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3)

저는 제 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나 양육은 도무지... 해도 해도 너무 어렵기만 합니다. 워낙 제 양육능력 자체가 미흡하기도 했구요. 그래서 노력하면서 우리 아기를 위해서 중간 이상 수준의 엄마이고 싶은데... 지금 그 정도는 된다...라고 확신하고 싶어요.

(J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4)

육아를 하면서 애를 키우는 것도 되게 큰 행복이라는 걸 느껴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별로 못했거든요. 난 애 키우는 거를 뭐 그닥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양육을 해보니 애 키우는 것도 되게 재밌고 행복해요.

(N 어머니의 인터뷰, 2023. 9. 8)

이처럼 자녀양육을 위한 본인의 열정과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자녀양육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그에 반해 첫 부모로서의 양육자들은 이론과 실제 사이에서 수많은 혼란에 노출되어 있었다. 출산을 준비하며 예비부모로서 많은 서적과 인터넷 정보를 익혔지만, 아이들이 이론에 맞춰 자라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 역할 또한 이론대로 실행한다는 측면에서 괴리감을 느꼈다. 반면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을 통해 양육에 있어서 본인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왜 자녀가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라주지 않는지 등에 대한 반복적인 고민과 개선의 노력들을 하고 있었다.

아이가 제대로 크고 있는지에 대한 확고함이 없어요. 내가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가 잘 크고 있다는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아기가 과연 잘 크고 있는 걸까? 가끔씩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네 아이는 팬찮아’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의구심을 갖죠.

(B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16)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생각을 해서 내가 몇 살에 아이를 갖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한 건 아니잖아요. 저도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생길 줄도 몰랐고 갑자기 생기게 되어서 남들보다 더 준비를 못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고는 하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게 많더라고요. 나는 충분히 한다고 하지만 아기 입장에서든 아기도 아기가 처음이고 나도 엄마가 처음이니깐 거기서 오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I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4)

안 되는 걸 안된다고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화를 참아야 되는데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엄마이기 전에 사람인지라 저도 모르게 나오는 욱한 성격, 이런 부분이 제일 부족하지 않을까? 하면서 하고 나서 매번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제일 부족하고 힘들어요.

(E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3)

이런 조그만 아이가 처음이라 신생아 때부터 안는 것도 우유를 주는 것도 다 여기저기 찾아보고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직 아이 케어하는 건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지금까지는 뭐 하나 사려고 해도 검색을 하고. 자녀 양육하는 부분에서 되게 역량이 부족한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죠.

(G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3)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육아는 자기 바닥을 보는 일이라고.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기분이 많이 들어요. 뭐 하나 쉽게 결정할 수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색해보거나 확인해 보고. 중간이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사람들한테 참는다고 했지만 속으로 봤을 땐 내가 정말 참고 있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애한테 쏟아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아직 부족한 엄마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H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3)

2)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양육하는 여성들의 ‘나에 대한 인식’ 부분에서는 특히나 자신의 재능이나 체력, 감정조절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다. 그중 주변 지인들에게 인정받았거나 본인 스스로 드러내고 싶은 장점 등을 언급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가 눈치가 빠르고 일머리가 있대요. 언젠가 이직 전 직장에서도 엄청 좋게 ‘가서 잘할 거야’라고 하고, 새로운 직장에서도 ‘다른 데 가셨어도 잘하셨을 거예요’라고 말해주고.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이랑 계속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거 보면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괜찮게 직장 생활하고 있지 않을까요?

(F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3)

저는 다른 사람보다는 감정조절을 잘하는 편이에요. 제가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면서 말하고 경청해주고 하니까 직장생활 할 때도 인기 많았어요(웃음).

(O 어머니의 인터뷰, 2023. 9. 8)

그러나 양육을 하면서 마주하는 육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어려워졌고, 그럼에도 육체적인 쉼과 자신의 정서를 돌보기 위한 소박한 힐링의 시간을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잘 돌보고 있지만 제 모든 에너지가 아이한테 무조건 집중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일하던 여성이었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했고 그런 일을 하면서 느꼈던 보람과 만족감들이 조금씩 그림더라구요. 아이에게 올인하니까 나만을 위한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면서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인지 내 자신에게 물어봐요(눈물).

(I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4)

양육하는 여성들은 양육과정에서 수시로 자신의 감정조절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고 가족 구성원들 간 다양한 감정을 공유, 공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소통의 부재로 인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고도 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들과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소통 방법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아울러 다른 역량보다도, 다른 양육자들에게 선 경험자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해당 분야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싶다고도 했다.

전이랑 다르게 감정 컨트롤 하는데 항상 실패해요. 양육할 때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그렇고... 어쨌든 나 스스로 감정조절을 하면서 말이나 행동이 나가야 하는데, 잘 통제가 되지 않아서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거나 남편한테도 맘에도 없는 악한 말을 할 때가 있어서 (눈물)... 그리고 나서는 늘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후회하죠.

(J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4)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함께 대화를 잘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먹이고 입히는 것만 잘하면 뭐 하겠어요. 화내고 남편이랑 싸우는 모습이나 계속해서 보여준다면요. 인성이 바른 아이들로 키우고 싶어서 아이들 앞에서 절대 큰소리 내면서 남편과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너무 우울하고 자신감도 없고... 중략... 가족과 대화를 잘하고 싶어요. 양육하는 여성에게는 매우 중요한 역량인 것 같아요. 가정이 편안하게 제일이죠.

(J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4)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겪은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 감정들이 긍정적으로 순환되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수업을 많이 받아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요즘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심한 우울증을 겪거나 분노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무서운 사건, 사고도 많고 신경정신과도 많이 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감정을 만져주고 다스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사회적으로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J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4)

한편 양육하는 여성들은 자녀에게 다양한 놀이도 제공해주면서 가정에서 그 밖의 다양한 일들도 감당해야 하므로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으나, 막상 이를 회복할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다고 했다.

저는 운동량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공을 잡는 간단한 것도 잘

못하고, 체력이 점점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는 지칠 줄 모르고 여기저기 움직이니까 저도 그 속도에 맞춰 함께 움직이다 보면 오후에 이미 체력은 바닥나요.

(N 어머니의 인터뷰, 2023. 9. 8)

확실히 오전보다 오후가 조금 지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애기랑 하루종일 있으면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한테 어떻게 해주면 더 좋지? 이런 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아이를 아이 혼자 놀게끔 두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놀이를 찾아서 하게끔 해도 되는데 저는 그걸 못하겠어요. 혼자 노는 게 되게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옆에서 참견하고 그러면 또 오후 되면 힘들고... 그렇죠.

(O 어머니의 인터뷰, 2023. 9. 8)

3) 나의 주홍글씨, ‘경단녀’

연구참여자들 다수가 외국어 능력, 영업능력, 자격증, 가르치는 능력, 열심과 성실, 일머리, 손재주 등 직업적인 범주의 역량들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

업무경력은 물론 있어요. 제가 했던 일이 외국어가 많이 필요했던 일인데, 외국에서 지냈던 경험도 있어서 언어적인 면에서는 이후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할 때 조금은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요?

(H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3)

옷 판매하는 것, 계속 그 일을 해서 저는 영업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일을 시작한다면 아마도 그쪽 일을 다시 하게 될 가능

성이 크죠. 그런데 지금 다시 하려면... 글썄요...

(A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16)

자격증이 두세 개 돼요. 그래서 그 자격증으로 경리도 거의 10년 했고 간호조무사로 3년, 사회복지사로 1년 했었고. 상담센터에서도 근무했었어요. 근데 애 낳고 바로 쉬었죠. 나이는 많지만 나중에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뭘 해야 할지 현재로서는 조금 막막하지만.

(B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16)

고등학교 아이들까지는 가르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 회계 자격증이 있어서 그쪽 일도 할 수 있고. 주어진 일들은 항상 어렵지 않게 했었죠. 예전에는!!!

(D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16)

저는 전공이 제과제빵이어서 지금 육아휴직 중이지만 그런 쪽으로는 손재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랑할 정도는 아니지만요. 하지만 복직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 가지로 불안해요. 한참을 쉬어서.

(O 어머니의 인터뷰, 2023. 9. 8)

한 생명이 태어나면 아기는 전적으로 양육자를 의지하게 되는데 그 양육자는 대부분 어머니의 몫으로 이어진다. 출산 전후 6개월 정도의 출산 휴가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자녀 양육이나 돌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연이은 육아휴직과 함께 이것은 다시 퇴직으로 연결되는 일이 부지기수다. 실제로 양육하는 여성들은 본인들의 취업 및 재취업에 대해서는 어렵고 힘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서슴지 않았다.

저는 마지막으로 일한 지 너무 오래됐고, 아이도 어렵게 낳아서 좀 오래 걸렸고. 그래서 일한 시간보다 쉰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만 점점 깊어지면서 요즘은 직업을 다시 갖는다는 것에 거의 자신이 없어요.

(H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3)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요, 아이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끝나면 퇴사하는 거로 결정했어요. 재취업을 할 때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건 아이니까. 쉰 기간이 오래라서 재취업했을 때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어디 받아줄 곳이 있겠나 싶어요.

(L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5)

취업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아기가 어려서. 보통 회사를 다니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끝나잖아요. 그 시간에 맞추기가 불가능해서, 파트타임을 구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더라구요. 내가 딱 원하는 조건들을 맞춰주는 직장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지요.

(I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4)

시간적인 부분도 많은 영향을 받지만 사실 그것보다, 이제 우리가 경력이 많이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다시 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함이 있어요. 원래 총무, 사무 이 쪽으로 해서 비서 쪽 일을 했고 전체적으로 회사 사무 관리를 다 했었는데, 오랫동안 그 일을 안 하다 보니까 회계 프로그램도 다 까먹었고... 몇 번 용기 내서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보기도 했었는데 전화 주는 곳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깨달았죠. 경단녀가 나의 주홍글씨라는걸(웃음). 보육 교사 자격증을 딴 것도 내가 지금 위치에

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내가 잘 해낼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다가, 제 인생의 마지막 터닝포인트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에 나의 성향을 맞추게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J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4)

전에 했던 업무경력이 하나도 인정 안 되고. 0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으니 어려움이 상당하죠. 그냥 막막해요.

(M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5)

양육하는 여성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재취업을 했을 때 변화된 직장에서의 요구되는 최신 업무 기술과 다양한 조직문화 등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처하는데 필요한 역량에서 다른 직원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도 단정지어 생각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예방하면서 본인들의 역량을 시대적 흐름에 맞춰 강화해나갈 수 있는 창업이나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저는 일할 때 만족도가 높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만큼 스스로 부담감이 엄청 있어요. 다시 돌아갔을 때 내가 예전만큼 못할 거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커서 지금도 원래 하던 거 말고 다른 곳에서 일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력직인데 왜 이만큼 밖에 못해”라는 말을 들을까 봐. 그런 부담감도 엄청 커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준비하고 싶은거구요.

(F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3)

제가 지금 4년 이상 일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사이 정권도 바뀌

고 법도 바뀌고 법적 내용 같은 것도 다 바뀌었잖아요. 크게 바뀌지는 않았겠지만 조금씩 다시 법규 같은 것도 공부도 하고 해야 되니까... (어렵겠죠). (직장은) 사무 쪽인데 이제 정부 과제 같은 거 하다 보면 다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조금 힘들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이도 나이고 체력도 체력이고, 더구나 저희는 기술직이어서 기술을 많이 배운 어린 친구들이 매년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직 눈에 띄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트렌드가 확확 바뀌니까 나도 그만큼 매우 빠르게 뒤쳐지는 거죠(웃음).

(N 어머니의 인터뷰, 2023. 9. 8)

그만둔 지 오래되었고 시스템이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겠지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부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새롭게 익혀야 되니까 그런 게 부담이 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해도 정규직으로 일하는 곳에선 일과 양육을 병행하면서 일하기에는 눈치가 많이 보일 것 같아요.

(H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3)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양육하는 여성들도 육아휴직 이후 자녀양육의 문제나 업무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이 가능할 수 있을지 걱정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어려움이 당연히 있죠. 저는 회사 소속이에요. 소속이 있어서 재취업까지는 아닌데, 복직을 했을 때 아이가 아프거나 하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거나 해야 하니까... 아마 그런게 가장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O 어머니의 인터뷰, 2023. 9. 8)

일단 복직 예정이긴 한데 업무 시스템이 많이 변경돼서 여기에 다시 적응해야 하는 것. 아이 낳고 나면 다시 리셋된다고 하더라고 요. 그래서 그 업무 시스템을 다시 배워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게 많아요.

(G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3)

2.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요구와 바람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요구에서 자녀양육을 위한 프로그램, 나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으며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참여시간과 학습결과의 활용, 건의사항 등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1)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요구

(1)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양육하는 여성들은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해 발달단계에 맞는 생활지도, 놀이방법, 어학교육 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다양한 양육상황 속에서 자녀를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므로 정기 및 수시 양육상담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설문 조사에서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필요영역으로 ‘부모교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결과와도 그 맥락이 일치한다.

저는 양육하면서 양육상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되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애를 이해하고 잘 키우자 이런 생각을 못 하고, 그냥 ‘네 마음은 네 마음일 뿐, 내 마음은 내 마음일 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육아를 시작하고, 아이와 얘기를 하면서 ‘이런 모습도 있구나’, ‘이렇게 고쳐주면 참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양육상담을 받고 싶은 거죠.

(N 어머니의 인터뷰, 2023. 9. 8)

엄마가 처음이다 보니까 육아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아이니까 양육상담을 통해 자녀양육에서 어떤 게 우선시되고 양육에 대한 올바른 지침, 가이드가 되어줄 수 있는 양육상담이나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L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5)

저는 첫 아이라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일단 지금 훈육을 하진 않는데, ‘아냐’, ‘맞아’ 라는 말로 ‘되고’, ‘안 되고’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해 줘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또, 여기가 외곽으로 떨어져 있어서 주말에 어디로 가려면 차량이나 이동수단을 이용해야 하잖아요. 근데 엄마와 애기랑만 있을 때 어디를 데리고 가야 할지... 많은 걸 알려주고 싶은데, 이 주변에는 그런 데가 딱히 없어서 고민이에요.

(O 어머니의 인터뷰, 2023. 9. 8)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해도 잘 키웠는데 지금은 온라인 맘카페 댓글이나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이렇게 안 하면 마치 너무 뒤쳐지고 있는 것 같거나 아이를 잘못 키운 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해도 지금 잘 크고 있는 거다, 최소한 이것만 해주면 문제없는 거다. 이런 걸 전문가가 정리해서 주면 마음의 위안이 되

지 않을까 해서 양육상담이나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는 전문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H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3)

양육하는 여성들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올바른 자녀양육에 대한 프로그램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방법에 대한 프로그램, 자녀에게 영어 교육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간단한 회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것은 희망 프로그램과 그 세부 영역의 요구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공통역량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어학강좌’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도 내용이 일치한다.

아이 발달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하고 부모니까 성교육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교육받고 싶어요.

(M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5)

요리,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만들거나 종이접기. 좋아하더라고요. 여기서 하니까. 모래놀이 같이 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걸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A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16)

저는 요즘 아기랑 집에서 엄마표 영어를 해주고 싶은데 제가 프리토킹이 안 되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이도 영어에 관심을 보이길래 영어로 대화를 해주고 싶은데 저도 그 문장과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 프리토킹이 조금 필요하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대부분은 만 3세 정도 되면 같이 영어를 배우기도 하고 원에서도 배우고, 원

에도 영어 선생님들이 주마다 오시니까 관심이 쌓이더라구요.

(D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16)

역사 교육 강좌나 인문학은 제가 잘 기억하고 알아두면 아이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재밌게 이야기를 들으면 기억에 많이 남으니까. 원래 사람이 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제대로 아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걸 배워서 제가 아이한테 제대로 알려줄 수 있으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사진 같은 경우는 잘 찍는 요령을 알아서 사진을 많이 남겨놓고 싶고. 요리는 사실 아기 요리하느라고 저희 부부는 거의 정말 막 먹고 있거든요.

(H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3)

(2) 나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양육하는 여성은 본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지식과 교양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설문조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공통역량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중 미술(공예) 활동, 홈패션, 악기교실 순으로 나온 세부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음식이나 빵 이런 것들, 내가 만들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거. 집에서만 있지 않고 밖에 나와서 예쁜 거를 만들면서 내가 이런 걸 만들 수 있구나, 꽃꽂이라든지 굳이 음식이 아니어도 만들면서 내가 뭔가 해낼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C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16)

일단은 제 스트레스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 과제빵, 미술공예, 홈패션, 사진 교실, 도자기, 공예 같은 취미 활동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H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3)

저는 일단 문화예술, 인문 교양, 직업 능력 향상 이거를 골랐거든요. 일단은 감성코칭 수업을 듣게 된 계기도 어디 취업해야지 하는 것보다 그때 그 감정, 아이 키우면서 힘든 감정을 한번 다스려보자 해서 들었던 거라서 이런 것과 비슷한 인문 교양이나 문화예술 쪽으로. 저는 스트레스를 풀 때 전시회를 가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또 이게 취업까지 같이 연계되면 좋잖아요.

(I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4)

또한 취미나 흥미 위주로 프로그램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추구할 수 있고 취업은 아니지만 사회참여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제3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아기 낳기 전에 했던 일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관점이 많이 바뀌었어요. 경력이 단절되면서 다른 일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저는 여가생활의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래요.

(N 어머니의 인터뷰, 2023. 9. 8)

지금 한다면 취업. 배움의 기회 이런 거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앞으로 일도 하고 싶고,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니까 저도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뭘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알바라도 해야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회참여, 당연히 하고 싶죠.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는 취업도 하고 싶고, 또 다른 것도 배워서 더욱더 재밌는 삶을 살고 싶어요.

(N 어머니의 인터뷰, 2023. 9. 8)

직업에 관해서는 일단 아이를 낳고 직업을 변경하는 어머니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잊어버린 사람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양한 취미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거에 흥미가 있구나, 나 이런 거에 소질이 있구나,,, 를 좀 느끼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직업도 그런 쪽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이것저것 배워보고 싶어요.

(G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3)

지금 여기에서 뭔가를 한다면 사회와 연계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봉사를 하다가 그 일로 틀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서비스를 하다가 그쪽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화 같은 거 배우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B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16)

시민의식 프로그램에서는 인권 교육과 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느끼고 있어요. 시민역량 프로그램은 수화 통역사 양성과정과 인권 강사 양성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J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4)

생각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자녀양육으로 인해 본인의 양육방법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과 이를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에 나를 알아보는 상담과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 강화 필요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상담(심리 및 양육, 부부 등)에 대한 요구가 나타난 것과 의미를 같이한다.

일단 초산인 경우에는 임신했을 때부터 이제 수유하는 방법, 목욕시키는 방법, 이런 거 되게 많이 검색해보는데 강사님께서 그런 걸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산전 요가 프로그램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G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3)

아이랑 둘이 같이 노는 방법, 아니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식재료로 다양한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잘 알면 육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H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3)

(3)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양육하는 여성들은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경력이 단절된 경우를 위한 재취업준비를 위한 과정이나 자격증과정, 취업을 위한 서류 준비 과정을 돕는 프로그램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희망 프로그램 설문조사에서, ‘사회역량으로 취업, 창업과 연결될 수 있는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도 그 내용이 일치한다.

프로그램은 있으면 있을수록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로 인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서 취업을 빨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E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3)

사회역량 직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 취업 창업 연결 부분에서는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과 취업 준비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으면 합니다. 여기서 취업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나이가 있고 상황이 있으니까 나에게 맞는 거를 적절하게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도 내가 정말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고...

(I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4)

경력단절 후 취업하게 되면 회사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제 입장에서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라서 그거에 대한 경력 유지나, 육아로 인해 경력이 잠시 단절되었다가 다시 복직해서도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 아니라 여전히 익숙하고 친숙한 느낌으로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L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5)

저는 직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이랑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합니다. 직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에서는 자격증 취득이 유용할 것 같고, 문화예술에서는 건강 마시지 강좌나 요리 교육이 재밌을 것 같아요.

(M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5)

직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에서는 자격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운동을 했었지만 아이 낳고는 다시 이쪽으로 가기엔 힘

들 것 같으니까 컴퓨터 자격증이나 재취업하기 편한 자격증을 하려고 했는데 취업 준비 프로그램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L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5)

제 직업에 맞춰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솔직히 어려운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력서 첨삭 이런 거? 왜냐하면 저만 해도 이직할 때 보니까 너무 바뀌었더라고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쓴 거를 봐주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F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16)

관심사가 취업이라서 취업 준비, 경력 개발, 훈련, 교육, 어학 강좌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 아이가 지금 어렸을 때는 뭐 하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나이가 계속 드는 중이니까 굳이 모든 걸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애한테 알려주려면 내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살짝살짝 하는데 그래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큼니다. 저는 약간 수화교실 이런 것도 해도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친구들도 약간 수화 장애인으신 분도 있고 해서 그냥 보통 뭐라고 해야지 청각장애인을 만나면 그냥 수화를 안 하고 구화를 하거든요. 수화를 하면 또 잘 소통이 될 테니까 (좋은 것 같아요).

(N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5)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취업이 바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므로 질 높은 프로그램과 능력 있는 강사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받고 싶다는 요구도 있었다.

저는 비용을 일정 부분 지불하더라도 프로그램 강사의 질이 제

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무료여도 듣기 싫고, 시간 낭비고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서 무조건 질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괜히 와서 시간 낭비하면 그게 진짜 후회될 것 같으니까. 국가에서 해준다고 하면 무료라고 해서 대충하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F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3)

2)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바람

(1)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 프로그램 희망시간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간은 자녀양육과 큰 관계가 있었다. 아무리 좋은 교육도 자녀들과 함께라면 참여가 힘들거나 집중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인지 프로그램 참여시간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하여 하원하기 전까지의 사이 시간을 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파트타임 근무 희망 사유’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자녀양육, 가족돌봄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다.

어린이집에서 이제 돌아오는 시간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2시부터 4시까지 하는 센터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저는 아이가 좀 늦게 와요. 늦게 오니까 이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제 다른 엄마들은 아이들이 이제 3시에 하원을 하니까 수업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도 중요한 것 같고.

(B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16)

아이 등하원 시간에 맞출 수 밖에 없더라구요. 저는 10시부터 3 시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H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3)

저는 우선 어린이집 가는 시간이 편해요. 등원, 하원 그 시간 안에 맞춰서 갈 수 있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필요한지 저의 필요성에 따라 또 다른 것 같아요. 강사 분도 되게 중요하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 필요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참여를 할 테니까요.

(N 어머니의 인터뷰, 2023. 9. 8)

어린이집에 보내도 풀로 근무할 수 없으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의 다양성을 많이 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E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3)

아직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참여가 힘들다고 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원격으로의 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하기도 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일단은 아이가 커야 되는 게 있고, 크고 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일단은 이 시간적인 부분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C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16)

시간이랑 장소. 시간은 아이들의 패턴이 있으니까 그런 패턴에 맞춰서 아이들이 낮잠 잘 시간에 맡기더라도 약간 마음 놓고 내가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장소도 못 오게 되면 원격으로도 많이 하

니까 원격 프로그램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G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3)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를 맡겨놓고 수업을 들어야 하니까. 아이가 조금 크면 시간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애네 시간을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프로그램을 들을 의지가 있지만 그게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H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3)

(2) 학습결과의 활용

양육하는 여성들은 프로그램 참여 후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기를 원하는가의 질문에 취업으로 연결되는 등 실생활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그 다음 단계의 보다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 참여의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프로그램 이수 후, 활용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취업이나 창업에 활용되기를 바라는 요구가 가장 높게 나온 것과도 내용이 일치한다.

이게 이제 애매한데 예를 들어서 학점 은행제 같은 경우에는 학력이나 학점 취업으로 당연히 연결되어야 하는 거고, 어학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에 적용이 되느냐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배웠으면 내가 실생활에서 그걸 접목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과 책 읽기를 했어도 실제로 집에서 아이들과 할 수 있느냐 이게 실생활에서 내가 진짜 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하고, 아까 얘기했던 학력이나 학점 취업은 학점 은행제나 자격증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격증이랑 학력, 학점으로 연결되는

거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느냐에 따라서는 원하는 결과가 다르겠지요.

(D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16)

저는 다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취업에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F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3)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 참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취업, 창업 활용을 하고, 학습 동아리 활동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고, 학력이나 학점 취득해서 사회 일원으로 갔으면 좋겠고, 자격증 취득 및 수료증 수요가 되면은 좋겠고, 그걸 활용해서 자원봉사도 하면서 폭넓고 유용하게 이용되면 좋겠습니다.

(J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4)

자격증 취득, 취업에 도움이 되고 학습 동아리 같은 게 생겨서 다른 사람들이랑 교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M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5)

자격증 취득 수료증 수여 뭔가 있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 취업할 때도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N 어머니의 인터뷰, 2023. 9. 8)

(3) 건의사항

프로그램에 대한 건의사항은 본인이 수강 가능한 시간대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어달라는 의견, 프로그램 비용이 현실적이었으면 하는 의견, 지

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의견, 프로그램 홍보가 잘 되었으면 하는 의견 등이 있었다. 이것 역시나 ‘프로그램 건의사항’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오전 시간을 최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 전문성이 높은 자격증반 개설, 취업으로 연계되는 시스템 확보 등의 건의사항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거의 엄마들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낸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여기 프로그램들이 많긴 한데 이 많은 프로그램에 우리가 참여를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는 시간에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3시나 4시까지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있거든요. 아침에 거의 늦어도 9시 반부터. 그 시간대에 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B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16)

어떻게 보면 사회참여도 금전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담이 들게 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좀 주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E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3)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문화생활이나 인문 교양을 넓혀서 그런 걸 충족하는 기쁨도 크겠지만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여기서 좋은 수업을 많이 듣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해서 더 나아가서 사회에 보탬이 되고, 경제적인 부분까지 뒷받침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I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4)

저는 일단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센터 자체에 이러한 사회참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회가 여기서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직접 교육을 받아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 주변에서도 마더센터라고 하면 주로 아이들만 사용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카페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가입해서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 여기 오게 된 게 앞에 있는 현수막이었거든요. 그런 홍보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파트 내에서도 신탄진 도서관에서 무슨 행사나 이벤트를 한다고 하면 공지가 와요. 그럼 그거를 알림판에다가 꽂아서 게시를 하는데 여기 마더센터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 홍보가 많이 돼서 발전하고 있는 신탄진에서 잠자고 있는 능력자 여성분들이 이곳을 통해서 유능한 사회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J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4)

교육을 받았을 때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이 이유식 만드는 프로그램. 식단, 영양 교육도 좋아요.

(L 어머니의 인터뷰, 2023. 8. 25)

제4장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위해 양적 설문 조사와 질적 설문 조사를 통해 지원을 탐구한 현장연구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전시에 거주하는 287명의 양육하는 여성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대덕구육아복합마더센터를 이용하시는 이용자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15명의 양육하는 여성들을 선정하고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해 287개의 설문 조사지와 15명의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자료를 수집하고 양적, 질적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지원의 욕구’와 ‘양육하는 여성의 욕구에 기반한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제안의 내용’으로 정리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의 욕구는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의 욕구는 양적 설문 조사 결과와 포커스그룹 인터뷰 분석 결과를 통합하여 살펴본 결과 양적 설문 조사 결과로 나온 프로그램의 욕구의 내용들이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재확인되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 욕구의 요인들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어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

다’, ‘양육하는 여성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의 세 가지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연구 문제에 따른 세 가지의 프로그램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양육하는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가사 노동이나 자녀돌봄과 학습지도에서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오랜 시간의 양육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소진되고 있는 경험을 한다(진미정 외, 2020). 그러므로 양육하는 여성들은 자녀 양육 시 부모의 역할을 배우고 자녀발달단계에 따른 교육적 도움을 받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부모 역할을 신장시키고 자녀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우남희 외, 2009).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설문 조사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에서 필요한 부분은 부모교육(발달단계에 따른 올바른 지도 방법 등) 30.3%, 자녀 양육에 필요한 요리법(이유식, 간식 등) 11.8%, 양육상담 18%로 자녀 양육을 위한 역량 강화의 필요가 총 60.1%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다양한 정보와 교육 제공의 기회가 필요하다(정미라, 김경숙, 이방실, 2013)는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경우에도 자녀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순간순간 현재 양육하고 있는 방법이나 과정이 맞는지, 제대로 크고 있는지 확인받고 싶어 하였고 발달단계별 교육방법, 자녀와의 상호작용방법, 올바른 양육태도를 알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자녀양육을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 지원은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을 높여주어 결국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자녀발달을 돕는 긍정적 순환으로 작

용한다. 어머니들의 양육기술 부족은 양육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증가시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높이게 되고(손수민, 2012), 영유아의 신호에 민감하여 적절히 반응하는 어머니의 민감성이 영유아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정미라, 권정윤, 박수경, 2011),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양육하는 여성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 여가시간의 경험은 맞벌이 여성들이 개인 여가시간과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다(손영미, 신규리, 2021). 이같은 양육하는 여성의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자신의 정신 건강 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부정적 양육태도나 가족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이봉주, 장희선, 2021),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유대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문설화, 오은미, 유선영, 2021). 그러므로 양육하는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 해소 및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김미혜, 황대한, 신규리, 2022). 또한 영유아 양육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여가활동, 사회적 여가활동의 참여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가족 건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유지은, 김현수, 2021).

본 연구에서 설문 조사에 참여한 양육하는 여성들은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프로그램에서 가장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41.9%)과 인문·교양 프로그램(10.8%)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프로그램에서는 미술(공예) 활동, 홈패션, 악기교실, 건강관리, 사진교실, 생활 스포츠 강좌, 도자기 교실 프로그램 등을 원하고 있었으며, 인문·교양 프로그램에서는 어학강좌, 정보화 교육, 개인생애 발달강좌, 생활 요리 프로그램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 역량강화와 직업능력강화를 필요로 한다고 설문에는 응답하

였으나 실제로 원하는 것은 개인의 힐링, 인문·교양의 개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로, 현실적으로는 현재 양육하는 여성들이 양육에 집중하는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힐링과 개인 역량강화를 위한 시간들이 보다 더 절실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서도 양육하는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지식과 교양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취미와 흥미 관련 프로그램 참여가 사회참여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드러났다. 또한 수입이 생기지 않아도 사회와 연결된 봉사활동의 참여와 이와 연결된 직업적 연계를 원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상담의 경우에는 자녀양육 외에도 부모인 내 자신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셋째,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설문 조사에 응답한 양육하는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 취업 및 재취업 시 어려움이 있다고(92.3%) 응답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자격증 과정(그림책감정코칭, 디지털 관련, 비리스타, 제빵사 등)의 필요가 27%로 나타났다.

양육하는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느끼는 어려움은 공백 기간으로 인해 직장에서의 일에 대한 숙련도 및 환경 변화의 대처가 힘들다(53%)는 의견이 절반 이상이었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여 경쟁자가 치열하다(25.1%)는 의견도 있었다.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직업능력향상교육이 28.1%였고 이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컴퓨터 자격취득과정, 바리스타 양성과정, 직무능력 향상교육, 창업교육, 제과제빵 프로그램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는 경력이 단절되었을 때 재취업을 위한 과정으로, 자격증과정, 취업을 위한 서류준비를 돕는 프로그램 등을 요구하였다. 현재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상황에서 다시 복직했을 때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 아니라 어려움 없이 바로 직장업무를 바로 재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이라든지, 재취업 시 서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업 준비 교육도 원하고 있었다. 또한 이전 본인의 전공 분야와 다르더라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증과정에 관심이 많았고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인 만큼 취업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질 좋은 프로그램과 능력 있는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금까지 양육하는 여성이 요구하는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는데 현실적인 프로그램 참여 희망시간과 학습의 결과 활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희망시간은 양육하는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경우 아이들의 등·하원 사이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주 1~2회(80.5%) 2시간(47.7%)을 원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의 결과는 자격증이나 수료증의 수여(33.2%), 취업, 창업 활용(30.3%), 보다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 참여(19.2%)로 이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므로 ‘자녀양육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양육하는 여성을 위한 취미, 힐링,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양육하는 여성들의 실제적인 참여가 가능한 시간을 고려하여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양육하는 여성의 욕구에 기반한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제안의 내용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 양육하는 여성의 욕구에 기반한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

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제안의 내용은 결과 내용을 중심으로 ‘양육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직업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개인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의 내용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40> 프로그램 개발 제안

구분	프로그램	세부항목
양육역량	양육교육	부모교육
	영양교육	자녀에게 필요한 요리법
	상담	양육상담
	발달단계	생애주기별교육
	체험활동	가족놀이
직업역량	디지털교육	컴퓨터자격증취득과정
		정보화교육
		사진 및 sns활용
	직업교육	바리스타양성과정
		뷰티크리에이터
		취업준비교육
	어학강좌	외국어
		수화교실
	시민참여	봉사활동동아리
개인역량	건강·스포츠	생활스포츠
		건강강좌
	생활요리	홈베이킹
		슬로우푸드
	문화예술	미술활동
		악기교실
	인문교양	지역문화탐방
		인문학적교양

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양육 관련 교육, 영양교육, 양육상담, 발달단계, 체험활동으로 하여 부모교육, 자녀에게 필요한 요리법, 양육상담, 생애주기별교육, 가족놀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 지원을 제안하고자 한다.

직업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네 가지로 구분하여 디지털교육, 직업교육, 어학교육, 시민참여로 나누어 컴퓨터자격증과정, 정보화교육, 바리스타양성과정, 뷰티과정, 취업준비교육, 외국어교육, 수화교실, 시민참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 지원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인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역시나 건강·스포츠, 생활요리, 문화예술, 인문·교양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생활 스포츠, 건강강좌, 홈베이킹, 가정요리, 미술교육, 악기교실, 지역문화탐방, 인문학적 교양 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 지원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제안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양적 설문 조사와 질적 설문조사(포커스그룹 인터뷰) 등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한 경험과 효과를 밝히는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양육하는 여성의 대상을 대전광역시 시민으로 한정하여 연구하였는데 그 범위를 확대한 지역의 양육하는 여성들을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나현, 이은주, 곽수영, 박미라(2013).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부담 감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3), 188-200.
- 김미란, 엄우용 (2022). 여성 기업가 역량모델 개발. 벤처창업연구, 17(5), 133-150.
- 김미옥 (2005). 장애인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Social Welfare Policy, 22(8): 351-381.
- 김미혜, 신규리 (2022).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여가스포츠참여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긍정정서의 매개효과. 한국융합과학회지, 11(4), 51-65.
- 김정원 (2020).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메타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미, 송하나 (2015).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긍정적인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자아 존중감의 조절효과. 육아정책연구, 9(2), 71-88.
- 김영남 (2012). 풀뿌리여성운동을 통해 본 여성주의 시민성의 확장에 관한 연구- 대전여민회 활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선 (2017). 춘천여성협동조합 마더센터 조직화 사례 연구.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정, 박경옥 (2021). 육아커뮤니티 시설의 공간·프로그램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32(1), 99-112.
- 문설희, 오은미, 유선영 (2021).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초등학교 어머니의 변화된 양육 경험. 지역사회간호학회지, 32(2), 162-174.
- 문연경, 민현숙 (2012). 영아의 기질, 발달수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원이 영아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

- 과학회지, 21(1), 59-70.
- 박새롬, 노보람, 박세준, 이순형(201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과 영유아기 기질 및 내재화 문제의 구조관계: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집단분석. 육아정책연구, 9(1), 119-148.
- 박성미, 도미향 (2019).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강화 부모코칭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부모교육연구, 16(1), 45-67.
- 박수홍, 정계숙, 유미숙, 차지량, 홍광표 (2013). 양육역량강화를 위한 액션러닝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육문제연구, 31(2), 157-178.
- 박종미 (2010). 정보화 수준이 청각장애(농)인의 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새수원신문. [인터뷰] 최수아(사)경기여성단체 수원시협의회 회장 “수원의 발전과 수원여성복지 위해 앞장서 뛰겠다”, 2018년 5월 10일자 보도자료. 수원시 내부자료.
- 손수민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비교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331-357.
- 손영미, 신규리 (2021). 코로나 19 시기, 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위킹맘의 여가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5(3), 259-273.
- 손제희, 김은정 (2014).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 아동양육 취업여성의 근로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 : 미취학아동양육 취업여성과 취학아동양육 취업여성 집단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23(3), 421-441.
- 신국희 (2002).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비서사무경영연구, 11(2), 125-144.
- 양소남, 신창식 (2011). 어린 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의 일가족양립 고충. 보건사회연구, 31(3), 70-103.
- 우남희, 김영심, 이은정, 김현신 (2009). 저 출산 시대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한국 어머니들의 인식 및 실태조사. 미래유아교육학회, 16(3), 297-325.
- 유지은, 김현수 (2021). 코로나 19 시기 영유아 양육자의 가족여가활동 참여가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29, 219-237.
- 윤소영 (2005). 저출산 가정의 출산율과 여성취업 경험. 한국가정관리학회

- 지, 23(2), 159-166.
- 윤자영 (2018). “젠더 불평등과 불안정노동”. 월간 복지동향. 제233호. 13-19.
- 이미화, 민정원, 엄지원, 윤지원 (2013). 영아보육의 실태 및 제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362.712-14-16 이순형, 민하영, 권혜진, 정윤주, 한유진, 최윤경, 권기남(2010). 부모교육. 학지사.
- 이봉주, 장희선 (2021). 코로나 19 발생 이후 아동폭력 잠재형화와 잠재유형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70(1), 147-180.
- 이연화 (2016).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보육시설 이용현황과 보육서비스 인식차이. 우석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안 (2021).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활성화 방안. 한국정책연구. 20(4), 139-162.
- 이은주 (2010). 영아기 비취업모·취업모의 자녀양육행동과 자녀양육지원에 관한 질적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경 (2002).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방법론에 대한 고찰: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과정 체계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18(4), 25-56.
- 이홍민, 김종인 (2003). 핵심역량 핵심인재: 인적자원 핵심역량 모델의 개발과 역량평가. 서울: 리드리드출판.
- 임현주, 최향준, 최선녀 (2012). 친지의 사회적지원, 부부특성, 어머니의 양육특성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3(2), 91-119.
- 조교수, 문영경 (2012). 사회적 지원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3), 165-177.
- 조형숙, 이효정 (2009). 장애이해교육의 구성과 운영실태 및 유아교사의 인식.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13(3), 359-377.
- 정미라, 권정윤, 박수경 (2011). 애착안정성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민감성이 12개월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15(6), 335-352.
- 정미라, 김경숙, 이방실 (2013).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지원에 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33(2), 163-189.
- 진미정, 성미애, 손서희, 유재언, 이재립, 장영은 (2020). 코로나 19 확산에

- 따른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의 변화와 스트레스.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8(3), 447-461.
- 최윤정, 김계현 (2010). 대졸 기혼 직장여성의 개인특성, 환경적지지 및 일-가족 다중역할 갈등 완화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22(4), 1049-1073.
- 최인선, 이소영(2022). 출산 양육기 여성의 일자리 질 변화 유형과 영향요인: 불안정 노동과 경력단절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113(2), 107-141.
- 최일선, 홍용희 (2003). 한별유치원 만 5세 기린반 교사의 유아평가양상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23(3), 171-195.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s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ogdan, R., & Biklen, S. K. (2011). 교육의 초보연구자를 위한 질적 연구방법론의 기초[*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조정수 역). 서울: 경문사. (원서 2007 출판)
- Boyatzis, A. S. (1982). The competent manager: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 Creswell, J. W. (2003). Creswell, J. W. (2003).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Dubois, D. D. (1993). Competency based performance improvement: A strategy for organizational change, Amherst. MA: HRD Press.
- McClelland, D. C. (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1), 1-14.
-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Newbury Park, Calif: Sage Publication, Inc.
- Persons, R. J. (1991). Empowerment: Purpose and Practice in social work, with Word with Groups, 14(2), 27-43.
- Rappaport & Zimmerman. (1988). Citizen Participation, Perceived Control,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5), 725-750.
- Spencer, L. M., & Spencer, S. M. (1993). Competence at Work: Model

-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 Staples, L. H. (1990). Powerful Ideas about Empowerment, *Social Work* 17, 29-41.
- White, R. W. (1959).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5), 297-333.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및 프로그램 욕구조사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사회 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제안 기초 연구

안녕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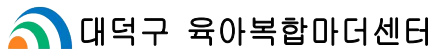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는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2023년 참여형 현장 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사회 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제안 기초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이용 실태와 만족도, 여성 프로그램의 요구도를 파악하고 향후 센터의 <여성 역량 강화 및 사회 참여 확대 지원 프로그램 개발> 기초자료로 지역사회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도시 구축과 운영에 소중한 정보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 조사자 등의 의무)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 자료수집 및 프로그램 개발 제안 관련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모든 문항에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 ◆ 주관기관 :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 ◆ 연구기관 :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 ◆ 연구책임 : 황순옥
- ◆ 연구문의 : 010-8288-5297

<표 계속>

응답자 기본 정보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연령	① 20세 미만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59세 ⑥ 60세 이상					
3	거주지	① 대덕구	② 유성구	③ 동구	④ 서구	⑤ 중구	
4	최종 학력	① 무학 ② 일반학교(□초졸 □중졸 □고졸) ③ 특수학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전공과) ④ 전문대학교 ⑤ 4년제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⑦ 기타(교육부 비인가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5	혼인 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_____)			
6	양육 여부	① 예					

II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이용 실태

10. 귀하는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문항 12번으로)

10-1. 귀하가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를 알게 된 경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대덕구청 홈페이지

②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온라인 채널(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등)

③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포스터 및 현수막

④ 인터넷 검색

⑤ 주변 지인

⑥ 기타(_____)

10-2. 귀하가 센터를 이용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선택하여 주십시오. (중복 응답 가능)

① 영아 프로그램(1세~3세)

② 유아 프로그램(4세~취학 전)

③ 초등 프로그램

④ 성인 프로그램(□자격증 취득반 □특강(교육 강좌) □ 취미, 오락, 여가 선택)

⑤ 심리 및 양육상담

⑥ 가족 프로그램

⑦ 대관 서비스(공유부엌 / 다목적실)

⑧ 기타(_____)

<표 계속>

11. 귀하가 센터를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을 3가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습득
- ② 동아리 모임 등 사회참여 활동 기회 확대
- ③ 취·창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등 기술 습득
- ④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
- ⑤ 취미활동 및 여가선용
- ⑥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의 안정(건강)
- ⑦ 대인관계 형성
- ⑧ 가족 또는 자녀와의 시간을 확보
- ⑨ 기타()

12. 귀하가 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프로그램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서(홍보 부족)
- 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서
- ③ 시간이 없어서
- ④ 교육비가 부담이 되어서
- ⑤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아서
- ⑥ 교통 및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 ⑦ 비장애인과 통합 교육이 불편해서
- ⑧ 인원 초과로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 ⑨ 기타()

Ⅲ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이용 만족도

13. (10번 문항 ①응답자만) 센터 이용 및 프로그램(교육)에 대한 만족도 질문입니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점부터 5점 중 동의하시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문	항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3-1	이동거리	①	②	③	④	⑤
13-2	이용시간	①	②	③	④	⑤
13-3	이용료(수강료)	①	②	③	④	⑤
13-4	이용인원	①	②	③	④	⑤
13-5	프로그램 다양성	①	②	③	④	⑤
13-6	프로그램 운영시간	①	②	③	④	⑤
13-7	프로그램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13-8	강사 자질	①	②	③	④	⑤
13-9	프로그램 내용의 사회적 활용	①	②	③	④	⑤

14. (10번 문항 ①응답자만) 센터 이용 및 프로그램(교육)에 대한 활용도 질문입니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점부터 5점 중 동의하시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문	항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이 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14-1	새로운 지식 및 다양한 정보 습득	①	②	③	④	⑤
14-2	사회적 참여 및 봉사활동	①	②	③	④	⑤
14-3	취업, 전직, 직무 수행 능력 개선	①	②	③	④	⑤
14-4	자기개발, 자아실현, 자질 향상 등	①	②	③	④	⑤
14-5	교양 증진 및 여가선용	①	②	③	④	⑤
14-6	사회적 인정	①	②	③	④	⑤
14-7	소득 향상	①	②	③	④	⑤
14-8	건강 증진	①	②	③	④	⑤
14-9	친밀한 대인관계(가족관계) 형성	①	②	③	④	⑤

<표 계속>

15. (10번 문항 ①응답자만) 센터 이용 및 프로그램(교육)에 대한 환경·서비스 평가입니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1점부터 5점 중 동의하시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문 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별 로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시 설 환 경	15-1	센터 관련 다양한 정보 확인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15-2	센터 이용 절차(방문/온라인)가 용이하다	①	②	③	④	⑤
	15-3	내부 시설(다목적실, 공유주방, 화장실 등)이 쾌적하다	①	②	③	④	⑤
	15-4	내부 시설 장비(wifi, 마이크 등)가 잘 갖추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5	안전 및 비상사고 관련 장치(구급약, 소화기 등)가 잘 갖추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6	주차 시설 및 교통의 편의성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직 원 평 가	15-7	직원들은 업무에 대한 관련 지식을 잘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8	직원들의 안내 및 응대 태도가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15-9	인터넷 및 전화 문의 시, 관련 업무들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15-10	요구하는 건의 및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반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시 설 이 용	15-11	다목적실/공유부엌 시설 이용료는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15-12	냉·난방 요금 및 장비 사용료는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15-13	장난감도서관 연회비는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15-14	연체, 고장 및 파손, 분실 등에 관한 조치는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16. 센터 이용 및 프로그램(교육)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IV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용어의 정의]

■ 역량 : 조직 내 개인이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행동

구분	프로그램 영역	하위영역
개인역량	성인문해 역량	한글문해
	학력보완 역량	학력인증
사회역량	직업능력 향상 역량	기초 직업, 취업 준비, 자격증 취득
공통역량	문화예술 역량	건강 · 스포츠, 문화예술 향유, 문화예술 숙련
	인문교양 역량	사회적 소양, 인문학적 교양, 생애주기별 강좌
	시민참여 역량	시민의식, 시민역량, 시민활동, 소외계층 지원

■ 사회 참여 확대 지원 :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관련 프로그램 지원

17. 귀하는 자녀를 양육하시는 여성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8. 자녀를 양육하신다면 자녀의 연령은 어떠합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영아(0~2세)

② 유아(3세~5세)

③ 초등학생(6~12세)

④ 중학생(13~15세)

⑤ 고등학생(16~18세)

⑥ 19세 이상

19. 귀하께서 현재 본인의 역량 정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충만하다

② 충만하다

③ 약간 충만하다

④ 약간 부족하다

⑤ 부족하다

⑥ 매우 부족하다

<표 계속>

20. (19번 ①,②,③응답자만) 귀하의 역량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부분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 | | |
|---------------------|----------------|
| ① 개인역량-성인문해 역량 | ② 개인역량-학력보완 역량 |
| ③ 사회역량-직업능력 역량 | ④ 공통역량-문화예술 역량 |
| ⑤ 공통역량-인문교양 역량 | ⑥ 공통역량-시민참여 역량 |
|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

21. (19번 ④,⑤,⑥응답자만) 귀하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 | | |
|---------------------|----------------|
| ① 개인역량-성인문해 역량 | ② 개인역량-학력보완 역량 |
| ③ 사회역량-직업능력 역량 | ④ 공통역량-문화예술 역량 |
| ⑤ 공통역량-인문교양 역량 | ⑥ 공통역량-시민참여 역량 |
|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

22. 귀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경력단절 여성 포함)의 역량 강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필요하다 |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
|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23. 귀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경력단절 여성 포함)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필요하다 |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
|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표 계속>

24. (22~23번 ①,②,③ 응답자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떠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부모교육(발달단계에 따른 올바른 지도 방법 등)
- ② 자녀 양육에 필요한 요리법(이유식, 간식 등)
- ③ 자격증 과정(정리수납사, 그림책감정코칭, 디지털 관련, 바리스타, 제빵사 등)
- ④ 여가/문화생활(댄스, 음악, 요가, 여행 등)
- ⑤ 상담(심리 및 양육상담, 부부상담 등)
- ⑥ 기타(구체적으로:)

25. 귀하께서는 현재 사회참여(취업/창업 포함)를 하고 계십니까?

- ① 예 (☞문항 27번으로)
- ② 아니오

26. 현재 사회참여(취업/창업 포함)를 하고 있지 않으신다면 과거 사회참여(취업/창업 포함)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27. 귀하께서는 앞으로 사회참여(취업/창업 포함)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28. 귀하께서는 양육하는 여성으로서, 사회참여(취업/창업 포함)를 계획하실 때 재취업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29. 귀하께서는 양육하는 여성으로서 사회참여(취업/창업 포함)를 다시 시작하실 때, 느끼신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여 경쟁자가 치열함
- ② 공백기간으로 인해 일 숙련도 및 환경 변화의 대처가 힘들
- ③ 트렌드 및 사무 작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이 어려움
- ④ 직업과 관련된 직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교육 훈련 시간이 너무 짧음
- ⑤ 기타(구체적으로:)

<표 계속>

30. 귀하는 양육하는 여성의 사회참여(취업/창업 포함)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필요하다 |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
|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31. (30번 ①,②,③응답자만) 양육하는 여성의 사회참여(취업/창업 포함)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 | | |
|---------------------|---------------|
| ①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 | ② 취업이나 승진의 도움 |
| ③ 학습, 학위의 취득 | ④ 배움의 기회 |
| ⑤ 인간관계의 확장 | |
|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

32. 귀하는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 | |
|------------|------------|
| ① 참여 의향 있음 | ② 참여 의향 없음 |
|------------|------------|

33.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포함)

- | | |
|---------------------|---------------------|
| 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서 | ② 관심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적어서 |
| ③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④ 프로그램 안내 정보가 부족해서 |
| ⑤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

34. 귀하가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면, 프로그램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 | |
|---------------------|--------------------|
| ① 프로그램 내용 | ② 강사의 전문성(인지도, 능력) |
| ③ 프로그램 운영기간 및 시간 | ④ 운영 기관 시설 및 설비 |
| ⑤ 운영 기관의 사회적 인지도 | ⑥ 운영 기관의 위치(교통편) |
|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

35. 귀하가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면, 다음 중 어떤 프로그램에 가장 참여하고 싶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개인역량-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 ② 개인역량-학력보완교육 프로그램
- ③ 사회역량-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취업/창업 연결)
- ④ 공통역량-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⑤ 공동역량-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 ⑥ 공통역량-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 ⑦ 기타(구체적으로 :)

36. 귀하가 참여를 희망했던 프로그램(35번 응답 참조)의 하위 영역에서 개설하였으면 하는 세부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중복응답 가능)

프로그램 영역	하위영역	개설 희망 프로그램(선택)
문해역량 프로그램	① 한글 문해 프로그램	☐ 한글교실(초급, 중급) ☐ 책 읽어주기
	② 한글 생활 문해 프로그램	☐ 고급 문해반 ☐ 컴퓨터 교육반 ☐ 한글 작문 교실 ☐ 학력검증을 위한 기초교육
	☐ 기타 희망하는 프로그램명 :	
학력보완교육 프로그램	① 학력 인증 프로그램	☐ 중입검정고시반 ☐ 초등학력인증강화 ☐ 초등교과연계강좌
	② 중등학력보완 프로그램	☐ 고입검정고시반 ☐ 대입검정고시반 ☐ 수능준비반
	③ 고등학력보완 프로그램	☐ 학점은행제강좌 ☐ 독학사강좌 ☐ 대학비학점강좌
	☐ 기타 희망하는 프로그램명 :	
직업능력향상 역량 프로그램	① 기초직업교육 프로그램	☐ 직업의식교육 ☐ 직업탐색교육 ☐ 직업적응예절교육
	② 취업준비교육 프로그램	☐ 직업기능교육 ☐ 직종훈련교육 ☐ 직무능력향상교육 ☐ 기능대회준비교육 ☐ 경력개발
	③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 컴퓨터자격취득과정 ☐ 지도자양성과정

		☐ 바리스타양성과정 ☐ 제과제빵 ☐ 창업교육
		□ 기타 희망하는 프로그램명 :
문화예술역량 프로그램	① 건강·스포츠 프로그램	☐ 건강관리 ☐ 성인병관리 ☐ 생활스포츠강좌 ☐ 댄스스포츠 ☐ 건강마사지강좌
	② 문화예술향유 프로그램	☐ 노래교실 ☐ 미술(공예)활동 ☐ 흥패션 ☐ 비즈공예 ☐ 사진교실 ☐ 문화예술관람
	③ 문화예술숙련 프로그램	☐ 서예교실(한글, 한문, 캘리그래피) ☐ 악기교실 ☐ 종창·합창교실 ☐ 도자기공예 ☐ 영상미디어교실
	□ 기타 희망하는 프로그램명 :	
	① 사회소양 프로그램	☐ 정보화교육 ☐ 생활요리 ☐ 역할교육 ☐ 보건 성교육
	② 인문학적교양 프로그램	☐ 시낭송 프로그램 ☐ 지역문화탐방 ☐ 인문학·철학 강좌 ☐ 역사교육강좌 ☐ 건강강좌
인문교양역량 프로그램	③ 생애주기별강좌 프로그램	☐ 어학강좌(영어, 중국어, 일본어) ☐ 정보화교육(엑셀, 문서 등) ☐ 개인생애발달강좌 (예비부부교육, 부모교육)
	□ 기타 희망하는 프로그램명 :	
	① 시민의식 프로그램	☐ 인권 교육 ☐ 성교육 ☐ 시민기자단 ☐ 환경·생태교육
	② 시민역량 프로그램	☐ 인권활동가양성과정 ☐ 수화통역사양성과정 ☐ 인권강사양성과정
시민참여역량 프로그램	③ 시민활동 프로그램	☐ 수화교실 ☐ 지역나눔활동 ☐ 봉사활동동아리
	④ 소외계층 지원교육	☐ 다문화가정지원 ☐ 장애인지원 ☐ 외국인근로자 사회통합교육
	□ 기타 희망하는 프로그램명 :	

<표 계속>

37. 위에서 선택하신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 ② 취업이나 진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③ 풍요로운 여가 및 취미생활을 위하여
- ④ 배운다는 그 자체가 즐거워서
- ⑤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배우고 알 수 있어서
- ⑥ 일상생활이나 직업 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 ⑦ 기타(구체적으로 :)

38.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프로그램의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주일 미만
- ② 1주일 ~ 1개월 미만
- ③ 1개월 ~ 3개월 미만
- ④ 3개월 ~ 6개월 미만
- ⑤ 6개월 이상

39.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프로그램 진행 횟수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주일 5일
- ② 1주일 3~4회
- ③ 1주일 2회
- ④ 1주일 1회
- ⑤ 월 2~3회

40.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프로그램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4시간 이상
- ② 3시간
- ③ 2시간
- ④ 1시간 30분
- ⑤ 1시간

41. 프로그램 이수 후, 학습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보다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 참여
- ② 자격증 취득 및 수료증 수여
- ③ 취업, 창업 활용
- ④ 자원봉사 활동
- ⑤ 학습 동아리 활동
- ⑥ 교강사 활동
- ⑦ 학력이나 학점취득
- ⑧ 기타()

42. 프로그램 이수 후, 사회참여(취업/창업 포함)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의 근무를 원하십니까?

- ① 오전 3시간(9시~12시)
- ② 오후 3시간(13시~16시)
- ③ 종일 근무(9시~18시)
- ④ 오전, 오후 상관없이 3~5시간 파트타임 근무
- ⑤ 상관없음
- ⑥ 기타()

<표 계속>

43. 종일 근무가 아닌 파트 타임으로 근무를 원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자녀 양육 | ② 가족 돌봄 |
| ③ 체력의 한계 | ④ 일과 가정의 병행 |
| ⑤ 여가, 취미 생활을 하고 싶어서 | ⑥ 기타() |

44.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확대 지원 프로그램 개설 관련하여 대덕구 육아
복합마더센터에 건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부록 2. 요구도조사 FGI 질문 목록

양육하는 여성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FGI 질문 목록

1	자녀 양육	귀하는 자녀를 양육하시는 여성입니까?
2		자녀를 양육하신다면 자녀의 연령은 어떠합니까?
3		자녀양육이라는 의미에서 양육받는 자녀란 그 연령이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4	여성 역량	귀하께서 현재 개인의 역량 정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귀하의 역량이 충만하시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부분에서 충만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6		귀하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귀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경력단절 여성 포함)의 역량 강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		귀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경력단절 여성 포함)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떠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	사회 참여 및 지원	귀하께서는 현재 사회참여(취업/창업)를 하고 계십니까?
11		현재 사회참여(취업/창업)를 하고 있지 않으신다면 과거 사회참여 경험이 있으십니까?
12		귀하께서는 앞으로 사회참여(취업/창업)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13		귀하께서는 양육하는 여성으로서, 사회참여(취업/창업)를 계획하실 때 재취업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14		귀하께서는 양육하는 여성으로서 사회참여(취업/창업)를 다시 시작하실 때, 느끼신(느끼셨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5		귀하는 양육하는 여성의 사회참여(취업/창업)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6		양육하는 여성의 사회참여(취업/창업)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7	여성 역량 강화 및 사회 참여 지원 프로 그램	귀하는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8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9		귀하가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면, 프로그램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20		귀하가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면, 다음 중 어떤 프로그램에 가장 참여하고 싶습니까?
21		선택하신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2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프로그램의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3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프로그램 진행 횟수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4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프로그램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5		프로그램 이수 후, 학습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까?
26	근무 시간	프로그램 이수 후, 사회참여(취업/창업)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의 근무를 원하십니까?
27		종일 근무가 아닌 파트 타임으로 근무를 원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8	건의 사항	양육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확대 지원 프로그램 개설 관련하여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에 건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